

시간 여행을 통해 천하질서를 재구성하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EAI
동아시아연구원

시 간 여 행 을 통 해 천 하 질 서 를 재 구 성 하 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EAI

동 아 시 아 연 구 원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3

시간 여행을 통해 천하길서를 재구성하다

편저자 | 하영선

편집 | 최수이, 김수민

디자인 | 신영환, 박현성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전화 | 02-2277-1683 (대표)

팩스 | 02-2277-1684

홈페이지 | www.eai.or.kr

등록 | 제2-3612호(2002. 10. 7)

ISBN 979-11-87558-09-5 05300

비매품

목차

★★★★★

답사일정표 ○○4

29세 박제가, 연경에 서다 ① 노가연 ○○7
_유리창

자신을 위한, 인민을 위한 혁명투쟁 ② 이민호 ○31
_모주석기념관

과거와 미래가 맞닿은 수평선 ③ 김형기 ○41
_국가박물관

새로운 조선을 향한 70일간의 고뇌 ④ 홍성표 ○57
_자금성

서태후의 두 얼굴을 간직한 곳 ⑤ 조소진 ○69
_이화원

부록 ○93

답사 일정표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09:45	도착
11:30 - 12:30	점심식사
13:00 - 15:00	중국미술관
15:30 - 17:30	유리창 / 노가연★
18:00 - 20:00	저녁식사
20:00 -	자유일정(전문대가 or 왕푸징 거리)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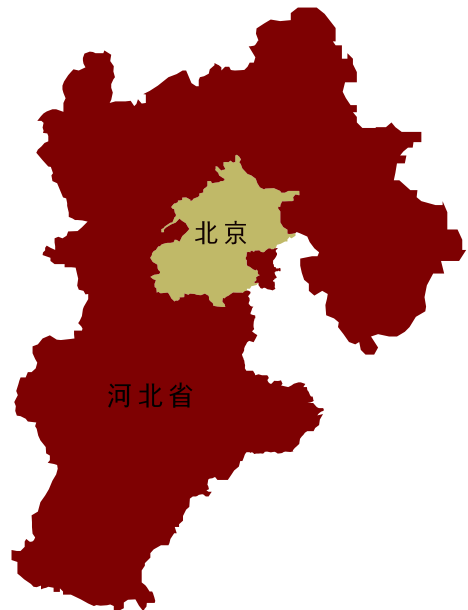
10:00 - 11:30	마오기념관 / 이민호★
12:00 - 12:30	점심식사
13:00 - 14:30	자금성 / 홍성표★
15:00 - 18:30	국가박물관 / 김형기★
19:00 - 21:00	저녁식사
21:00 -	자유일정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10:15 - 11:30	원명원 / 구민선★
12:00 - 13:30	점심식사
14:00 - 16:00	이화원 / 조소진★
16:30 - 17:30	수도박물관
18:00 - 20:00	저녁식사
20:00-	자유일정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10:00 - 11:30	남천주당, 고관상대
12:00 - 13:30	점심식사
14:00 - 15:00	798예술구
17:30	출국



EAI 사랑방

2013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 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29세 박제가, 연경에 서다 _유리창 고문화가

노가연

시카고대학교

21세기 사랑방, 베이징에 서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2015년 12월 28일, EAI 사랑방 6기 일행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우리는 21세기의 베이징을 잠시 만끽하였습니다. 서울의 삼청동처럼 아기자기한 느낌의 짧은이들이 가득한 난뤄구샹, 그곳의 한 식당에서 즐긴 윈난식 휘귀, 중국 현대 예술계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었던 국가미술관, 미세먼지 적색 정보에 한국에서부터 바리바리 준비해 간 황사 마스크까지(?), 중국과 세계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오늘날의 베이징을 잠시 엿본 우리는 느즈막한 오후가 되어 첫 번째 답사 장소인 유리창 고문화가(琉璃廠 古文化街)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유리창은 관광지로서 흔히 서울의 인사동에 비견되지만, 여름도 아닌 추운 겨울 해질녘의 유리창 거리는 시민들이 후통 안쪽 어딘가에 있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한산한 퇴근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시기 연경 도성 밖 지식과 문화의 거리였던 유리창은 조선시대 연행사들이 연경 방문 시 반드시 들러 많은 시간을 보낸 지식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연행사들은 유리창에서 청나라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청과 서구의 문물을 접하고, 소중화(小中華)로서의 조선과 만주족의 중국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는 두 시간 남짓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지만, 조선시대의 연행사들에게는 두 달 여가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 이 도시에 폭 빠진 조선의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조정 박제가(楚亭 朴齊家)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를 오랑캐로만 여기고 있었던 조선 사회에 그들의 선진 문물은 본받아야 한다는 사상인 북학(北學)을 주창한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여행을 다녀온 직후 청에서 본 물질문명을 기록한 기술서이자 북벌론에서 벗어나 청에서 배워야 한다는 사상서인 《북학의北學議》를 저술하였고, 일생 동안 연경과 한양이라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네 번이나 오가며 그 사상을 평생 동안 보충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연경에 발을 디뎠을 때, 박제가의 나이는 사랑방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올라온 책들과 지식인들이 모인 발달한 서점가였던 유리창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연행사들에게 특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박제는 연경과 유리창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연경과 유리창의 어떤 모습이 그에게 《북학의》를 저술하게 했을까요? 여느 대도시의 한복판처럼 차가 많고 어수선한 난신화제(南新華街)의 유리창 동가(東街) 입구에 서서, 조정의 초기 생을



▲ 유리창 동가와 서가를 잇는 석교. ‘유리창(琉璃廠)’ 현판이 붙어있다.

되짚어 처음으로 연경을 경험하던 그 순간 그의 생각과 꿈을 복원해 보았습니다.

청나라 후기 지식의 중심, 유리창

청나라 시기 수도 내성(內城)의 작은 문 중 하나인 화평문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대로인 난신화제를 중심으로 좌우로 뻗어 동가와 서가로 나뉘는 유리창은 합쳐서 1km가 안 되는 길지 않은 골목입니다. 이 아담한 구역이 현재 ‘유리창’으로 불리는 곳이고, 연행록 중 구체적인 기록들에 의하면 온갖 서점들이 밀집해 있던 골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리창’은

중국 각지와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과 장사꾼들이 널리 머무르고 있었던 정양문에서 선무문까지에 이르는 훨씬 넓은 영역을 지칭했다고 합니다.

원나라 때부터 유리기와를 굽던 공장 지역이었던 유리창이 상점가이자 서점가로 변성한 것은 건륭(재위 1735-1796) 초기 즈음입니다. 유리창이 지식교류와 상업활동의 장으로 떠오른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선비들입니다. 이들은 책이 많은 유리창 지역에 머무르며 과거를 준비하고, 낙방할 경우 그대로 머무르며 다음 과거를 준비하거나, 갖고 있던 서책과 문방구를 유리창에서 팔아 체제비나 고향에 돌아갈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1773년 시작된 사고전서 편찬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책들이 연경으로 모여들었고, 그 책으로 작업에 착수할 학자들도 전국에서 연경으로 파견되어 선무문 남쪽 등 유리창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청대 중반 유리창을 중심으로, 관민이 모두 관계된 서적·문방구·학자들의 수요와 공급이 전국적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시 이런 규모의 수요를 감당할 만한 출판 산업은 강남에서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명말청초 강소성과 절강성은 상업 출판인쇄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강남의 책들은 몇천, 몇만 권씩 서선(書船)에 실려서 항주에서 북경까지 이어지는 대운하를 통해 유리창에 도착했습니다. 연행록에 등장하는 유리창의 수많은 서점 주인들도 모두 강남 출신이었고, 박제가의 첫 번째 연행 시기 인연을 맺은 후로 조선 사신들의 단골 서점이 된 ‘오류거’의 주인 도정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만남 당시 도정상의 설명이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책을 실은 배가 강남에서 와 통주 장가만에 닿았는데, 내일이면 그 책을 이곳으로 수송하여 올 것이고 책은 모두 4천여 권이 될 것이다.” (이덕무 1778)

조선 연행사들의 입장에서는 유리창의 서점만 해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서점’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유리창의 서점 내부에는 벽을 빙 둘러 열 몇 층의 시렁에 몇 만 권의 책이 놓여 있었고, 칸마다 표지가 붙어있고, 서책 목록이 따로 있어 책을 원하는 대로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중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서책과 골동품 등을 구매하는 쇼핑 장소였을 뿐 아니라 그 스케일은 가히 별세계와 같았습니다.

한양의 젊은이 박제가의 꿈

박제가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유리창에 도착했을까요? 초정 박제가(1750~1805)는 한양에서 승지 박평의 서자로 태어나, 소실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한양 성명방(현재의 서울 중구 대한극장, 한옥마을 부근)에서 자랐습니다. 친가는 소북 계열의 명문가였으나 11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가 홀로 초정을 키웠는데, 어려운 살림에도 초정이 학구열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초정은 27세에 쓴 <소전>에서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물소 이마에 칼 같은 눈썹,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를 지녔다. 고고한 사람만을 가려 더욱 가까이 지내고, 권세 있는 자를 보면 일부러 더 멀리하였다. 그런 까닭에 세상과 맞는 경우가 드물어 언제나 가난했다. 어려서는 문장가의 글을 배우더니, 장성해서는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經濟之術)을 좋아했다. (박제가 2010, 206)

스스로를 외모로나 성품으로나 주류에서 멀리 떨어진 ‘아웃사이더 학자’로 여기고 있었던 초정의 캐릭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높은 학구열과 세상에 뜻을 펼치고 싶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열에 대한 신분 차별로 인해 높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일찍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를 받아준 것은 1760년대 후반께 형성된 이른바 ‘백담시파’의 벗들이었습니다. 지금의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석담 근처에 살던 초정과 같이 서열 출신 학자인 이덕무, 유득공, 적출이면서도 그들과 뜻을 함께한 박지원, 이서구 등 20-30대 젊은이들이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던 모임이었습니다. 백담시파 모임은 멤버들이 관직에 나아가기 전까지 10년 가량 지속되어, 박제가의 20대를 꽉 채우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현대에 와서 실학 학파의 한 갈래인 ‘북학파’로 불리게 되지요.

초정이 아직 청소년기였을 때, 젊은 그에게 영향을 끼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청나라에 다녀온 경험을 쓴 사행록들이 조선이 앞잡아 보고 있던 두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1763년 성대중과 원중거의 일본 통신사행으로, 에도까지

갔던 마지막 사절이었습니다. 이들의 사행록은 일본의 상황과 문화를 분석적으로 충실하게 기록하며 일본 문물 중 우수한 점은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북학파의 주장과 맥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서로에 대한 관심도, 필요도 줄어들어, 일본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는 주장은 19세기 후반까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1765년 홍대용의 여행입니다. 홍대용 이전에도 여행 사절은 계속 있어왔고 여행록도 수시로 만들어졌지만, 연경의 한인(漢人) 지식인들과 인간적인 교분을 맺고 돌아온 홍대용의 여행은 조-청 지식교류에 있어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등장한 여행기에서는 유리창과 현지인과의 교류에 대한 내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홍대용의 귀국 직후까지도 조선 사회는 그가 더러운 오랑캐들과 어울렸다고 비난하는 분위기였지만, 백담시파의 젊은이들은 홍대용의 여행록과 필담집을 읽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열광했다고 전해집니다. 박제가가 쓴 한 편지에 그 설렘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밥상을 두고도 수저 드는 일을 잊어버리고 세숫대야 앞에서도 씻는 것을 잊을 정도입니다. ... [담헌이] 사귄 사람들은 모두 다 지난날 책 속에서 본 인물들이요, 주고받은 말들은 모두 하나하나 우리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박혀 있던 것들입니다. (박제가 2010, 316-320)

그러던 중, 박제가가 첫 번째 여행을 떠나기 2년 전인 1776년,

백담시파의 젊은이들에게 중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득공의 7살 많은 숙부인 유금이 연행을 다녀오면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의 시를 모은 《사가시집》(뒤에 《한객건연집》으로 전해짐)을 가져가 서문과 비평을 받아온 것입니다. 네 사람의 시 모두 연경의 이름난 문사인 이조원과 반정균에게서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중 박제가의 시에 대한 반정균의 평에서 그의 강하고 자아가 뚜렷한 기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정의 시는 손을 빼는 솜씨가 탄환 같다. 하지만 편벽되거나 꺾끄러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른바 글이 묘경에 들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숙련됨은 없다. 품은 뜻이 우뚝해서 마치 그 사람을 보는 것과 같다.
(정민 2014, 325-326)

1777년 봄 유금이 연행에서 돌아왔을 때, 백담시파의 4인방은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중국 명사의 반응을 읽고 감탄해 마지 않았습니다. 서얼 출신으로 주류 정치, 주류 학계의 언저리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던 동방의 젊은 선비들을 중국 본토의 쟁쟁한 문사들이 높이 평가한 것은 실로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홍대용이 연경에서 만난 학자들과 이어간 국제적 교류를 동경하던 이들은 비로소 세상에 자기들을 알아주는 곳이 있구나 하는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민 2014, 329-344).

이들은 이조원, 반정균에게 답장을 써서 연락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실제로 만나보지도 못한) 이조원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자기들끼리 생일을 축하하는 흥미로운 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양 도성 안에 갇히지 않고 멀리 연경의 풍요로운 학계와 시공간을 공유하기를 선망했습니다. 그런 들뜬 시간이 계속되던 중, 박제가에게 실제로 그 곳에 가볼 기회가 찾아옵니다.

박제가, 연경에 첫 발을 딛다

1778년 봄, 정사 채제공의 연행에 자제군관으로 박제가와 형암 이덕무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각 29세, 38세였습니다. 3월 17일에 한양을 출발하여 5월 15일 연경에 입성, 6월 16일까지 한 달 가량 머무르는 동안, 이들이 백담 근처에서 꿈에 그려왔던 동시대인들과의 교류를 이룰 수 있었던 장소가 유리창이었습니다. 이덕무는 이 때의 사행 기록을 《입연기》라는 책으로 썼는데, 이 기록에 따라 박제가가 처음 만난 연경과 유리창에서 보고 겪었을 일들을 간략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덕무는 처음 목격한 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대개 통주 대로에서부터 여기까지 40리로 길에 네모난 흰 돌을 깔았는데, 수레바퀴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우레 소리 같았다. 연경의 길은 흙이 모두 검고, 인가의 번성함과 시사(市肆)의 사치스러움이 참으로 천부(天府)라 할 만하다. 수륙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말로는 그

대략도 설명할 수 없고, 붓으로는 그 일부도 기록할 수 없다. (이덕무 1981).

유리창을 처음으로 방문한 것은 5월 17일로, 이덕무는 박제가와 함께 유리창을 두루 구경하고 정양문 앞거리를 지나 돌아옵니다. 다양한 물건도 구입했는데, 서적, 그림족자, 고옥(古玉), 비단 등이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고개가 아팠다. 사통 오달한 거리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서로 어깨를 비비고 지나다녔다. 사녀(士女)를 태운 태평거(太平車)가 끊임 없이 왕래하는데 화려한 비단옷은 눈을 현란시키고 화장 냄새는 코를 찌르며, 굴러가는 수레 소리는 우레 소리와 방불하다(이덕무 1981).

이덕무의 기록에는 연경의 수많은 사람들과 물자와 본 적 없는 화려함과 본 적 없는 풍요로움에 대한 감탄과 버거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덕무뿐 아니라 많은 연행사들이 연행에서 본 유리창과 연경 시내의 풍경을 기록할 때마다 ‘수레 소리가 우레와 같다’고 적었습니다. 지금은 차로 가득한 유리창 입구 대로의 바닥에 돌판들이 깔려있고, 수많은 수레들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모습, 그 새로운 광경에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조선 사신들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5월 19일부터 두 사람은 함께 본격적으로 유리창의 책방들을 순회합니다. 19일 당일에는 총 열두 곳을 들르며, 책벌레로 유명한

이덕무는 조선에 없는 책과 희귀한 책들의 리스트를 하나하나 기록했고, 그 후로도 틈틈이 못 가본 책방들에 들르며 유리창 서점가를 섭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꿈꾸어 왔던 명사들과의 만남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조원은 새로운 직임을 맡아 남쪽 지방으로 내려간 뒤여서 만날 수 없었지만 반정균을 드디어 직접 만났으며, 이조원의 사촌 동생 이정원, 이기원, 당낙우, 축덕린 등 유리창 근처에 기거하던 문사 다섯 사람과 초정, 형암은 연경에 머무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덕무, 박제가 일행이 떠날 때에 이별연도 여러 번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필담으로 소통했음에도 쌓인 정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 떠나기 전날 밤, 축덕린의 집에서 작별한 그들은 “나을 적에 각각 손을 잡고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을 나누며 이별의 정을 못내 아쉬워하였다”(이덕무 1981)고 합니다.

이상이 《입연기》에 드러난 연경에서 초정과 형암의 행적입니다. 이덕무는 유리창의 서점을 방문할 때나 연경의 새 친구들을 만날 때는 항상 ‘재선과 함께’ 했다고 적었고, 같은 자제군관 직무로 연경에 온 두 친구는 아마 행동을 거의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덕무의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적어도 박제가는 장소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각종 문물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다녔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록을 따로 정리하지 않은 초정이 조선에 돌아온 직후 쓴 책은 소중한 만남의 필담 기록도, 또다른 시집도 아닌, 중국에서 수레, 건물, 다리를 짓고 유리창에 넘쳐나던 문방구를 만드는 기술의 방대한 디테일을 담은 《북학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날의 유리창은 서점보다는 문방구, 화구, 공예품들을 파는 상점들이 많습니다. 19-20세기 중국이 겪은 파란만장한 역사처럼 유리창 거리도 부침을 겪어, 현재와 같은 모습의 유리창 거리는 개혁개방 이후 재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행사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는 없지만, 문화혁명을 거치면서도 명맥을 유지한 가게들과 골목 구석구석에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가를 둘러보고 서가로 넘어왔을 즈음엔 날이 어둑어둑해져, 좀 더 차분한 분위기인 서가의 서점들이 운치 있게 불을 밝힌 간판들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 영보재(榮寶齋)는 원래 1672년 세워진 ‘송죽재’를 전신으로 하는 특히 오래된 서화점으로, 저우언라이 등 현대 중국 정치 지도자들 또한 단골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영보재 본점의 위치가 조선 연행사들의 단골 서점이던 오류거와 비슷한 서가 북편의 가운데 쯤이라는



▲ 유리창 서가(西街)의 모습

점에서, 높이 쌓인 책들에 감탄하며 한 권 한 권 열심히 들춰보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서가의 입구 쪽에 자리한 ‘영보재 북카페’에 들어가 몸을 녹이기로 했습니다.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느낌을 살린 깨끗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북학의》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778년, 초정은 조선에 돌아온 후 여름 동안 통진에 틀어박혀 《북학의》를 저술합니다. 《북학의》라는 제목은 《맹자》에 등장하는 남방 초나라 출신 진량이 “주공과 공자의 도를 좋아하여 북쪽의 중국에 가서 공부하니 그 결과 북방의 학자들 가운데 진량보다 나은 자가 없었다”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북학’이란 변방 오랑캐의 입장에서 ‘북방(중원)을 배운다’는 의미의 동사인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중화문명을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북학의》의 주장이 새로운 이유는 첫째, 당시 조선의 숭명반청과 주자성리학적 분위기에서는 청나라를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풍토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초정은 자신의 연행 경험에서 “그들의 풍속 가운데 본국에서 시행하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만한 것”(박제가 2013, 27)을 《북학의》에 기록했습니다. 박제는 서문에서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은 둘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로 정덕(正德)을 해친다.”(박제가 2013, 28)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용은 백성의 생활의 편리함을, 후생은 생활의 풍요로움을, 정덕은 바른 덕을 세우는 일을 뜻합니다. 백성의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해야 세상에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북학의》는 내편과 외편으로 나누어져, 내편은 중국에서 도구와 건축물 등을 어떻게 만들고 목축업과 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주로 중국에서 보고 온 견문을 기록했습니다. 외편은 앞부분에는 농업 기술을, 〈과거론〉, 〈존주론〉 등에는 사회개혁 사상과 북학의 논리를 담았습니다. 《북학의》는 정식 출간되지는 않았으나, 오늘날까지 20여 종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어 그 반향을 어렵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조선

얼핏 보았을 때 《북학의》는 기술서에 가깝습니다. 수레와 배를 만드는 기술로 시작하여, 성·벽돌·기와·주택 등의 건축 기술, 도로·다리 등의 토목 기술, 소·말 등 가축을 다루는 기술, 담요·활·종이 등 일상용품 제조 기술, 농지경영과 농기구와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선의 방식은 어떻게 나쁜지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초정이 제안하는 ‘북학’과 기술은 단순히 일상의 편리를 위해 도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측면뿐 아니라, 요즘 말로 하자면 계획과 규격화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구하는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정은 당시 조선 사회의 무계획성과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평평하지도 못하고 가게들이 마음대로 도로를 침범하게 두어 사람과 말이 왕왕 부딪히는 조선의 도로를 석판이 깔리고 규격에 맞춰

일정 거리마다 가로수가 심어진 중국의 도로들처럼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제가 2013, 108-111)

기술 문제는 사실 사회 전체의 태도 및 문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정교하게 만든 것을 보지 못한 사회의 풍습과 제도는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인이 처음에 물건을 거칠게 만들자 그것에 젖어든 백성들이 거칠게 일하고, 그릇이 한 번 거칠게 만들어지자 백성들이 그것에 길들여져 마음이 거칠어졌다. 그런 태도가 이리저리 확산되어 습관으로 굳어졌다. 자기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자 나라의 온갖 일들이 모두 그 그릇을 본받는다. (박제가 2013, 95)

일찍이 초정은 《한객건연집》 서평 이후 이조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직접 중국에 가보고 싶은 희망을 밝히며, “중국의 산천과 인물의 장대함, 궁실 건축과 수레와 배를 만드는 제도, 농사를 비롯한 온갖 기술과 산업의 종류를 마음껏 보고자 합니다.”(박제가 2010, 325)라고 적었습니다. 1778년 첫 연행을 나설 때 중국의 기술과 산업에 대한 자료를 모아오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힌트는 홍대용과 선대 연행사들의 연행록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우물물은 퍼내지 않으면 저절로 말라가는 법”

(박제가 2013, <재부론> 252)

중국의 기술과 산업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기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연행길에 올랐지만, 초정이 연경에서 크게 깨달은 것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덕무의 기록과 더불어, 초정이 《북학의》에 직접 기록한 유리창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렁설렁 구경해도 번쩍번쩍 휘황찬란한 물건들이 많아서 말로 표현하거나 형상으로 그려내기가 불가능하다. 수만 금에 달하는 천하의 재물이 모두 이곳으로 몰려들어 물건을 사고파는 자들이 하루 종일 끊어짐이 없다. (박제가 2013, 177)

초정은 연경과 유리창으로 중국 전역과 세계의 책과 물건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레와 선박을 통해 그 곳으로 물밀듯이 모여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북벌론자들이 부르짖던 대로 야만스런 오랑캐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북학의》는 제대로 만들어진 수레와 배를 통한 육상·수상 유통을 기반으로 상업과 국내외 통상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주장합니다. 사실 《북학의》의 첫째 둘째 편이 <수레>와 <배>인 것이 무엇보다 큰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초정은 조선이 자원은 풍부하나,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물건으로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박제가 2013, 53)는 현실을 지적하며, 나라 전체 차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연경의 풍족한 시장들도 점포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물자가 유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박제가 2013, 136).

유통의 중요성은 곧 상업의 중요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상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말리(末利)라고 하여 업신여겼는데, 초정은 사농공상 네 부류 중에 상인이 나머지 셋을 소통시키는 역할이므로 “열에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제가 2013, 134)고 역설합니다. 중국에서는 유생이나 재상이라도 가난하면 장사를 하고 떼떈하게 구매 행위를 하는데, 조선에서는 허례허식과 금기가 너무 많아 “사대부라면 차라리 놀고 먹을지언정 농사짓는 따위의 일을 하지 않는”(박제가 2013, 138) 세태를 비판합니다.

이는 재물과 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조선의 성리학에서는 검약만이 미덕이며 중국의 화려한 문명을 보고도 지나친 사치라고 여기는 분위기였는데, 초정은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 탓에 쇠퇴할 것”(박제가 2013, 135)이라며 질타합니다. 이에 대한 그의 비유가 절묘합니다.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 버린다.”(박제가 2013, 135)

많은 이들이 사치라고 비난한 것은 사실은 백성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산력이며, 그 고리를 계속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한편 초정이 보기에 조선에서의 ‘검소’란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의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북학의》에서 가장 중요한 글 중 하나는 <강남 절강 상선과의 통상론>입니다. 조선은 삼면이 바다이고 중국 강남 지역과의 직선거리가 멀지 않음을 지적하며, 우선 청나라와 통상을 시작한 뒤 차례로 다른 나라와도 교역하기를 주장합니다. 또한 초정은 해외와의 통상은 조선에 물질적 발전뿐 아니라 “세상의 개명을 위한 밑바탕이 되므로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데만 그치지 않”(박제가 2013, 259)고 문화적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북학의》의 통상무역론은 사학, 문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무역학 등 국내 다양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북학의》의 의미와 유산

박제가의 연행은 그의 북학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초정의 북학 사상은 사실 연경을 목격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학의》의 주장 중 일부는 선배 실학자들의 저술에서 맥락을 찾을 수 있고, 백담시파 동료들의 저술에서도 많은 부분을 함께 연구하고 공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정이 연경에 가보기 전에 썼던 이조원에게 보낸 편지나 <세모회인시>를 보면, 그때부터 조선의

사회적·경제적 현실에 염증을 느껴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서구 문명에도 눈을 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연행을 가서는 기술과 더불어 유통과 상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일본과 서구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해 관심을 더이상 확장시키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대신 조선의 물질적·문화적 풍요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과 제도, 사상과 그 근거들을 연행에서 얻어왔지요.

《북학의》 저술 후인 1779년, 정조가 박제가(30세),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등 백탐시파 중 4인을 외규장각의 초대 검서관으로 임명합니다. 이후로도 정조는 박제가를 총애하여 모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특채로 채용하는 등 평생 동안 아꼈습니다. 사실 ‘총애’를 받았다고는 하나 4검서와 비슷한 연배(초정보다 2살 아래)였던 정조 역시 28세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서출임에도 뛰어난 생각을 가진 인재들에게 궁궐의 지식을 관리하게 한 것은 즉위 4년차 왕의 야심찬 포부이기도 했습니다.

박제가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검서관의 직무는 힘들었고, ‘오랑캐의 나라를 배워야 하며 우리나라 것은 도통 쓸모가 없다’는 요지의 책을 쓴 오만방자한 서얼 관료는 ‘당괴’로 불리며 문벌 귀족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초정은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극단적인 편으로, 박지원, 이덕무 등 같은 북학과 학자들도 그의 ‘당벽’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박제가는 일생을 통틀어 검서관으로서와 지방 현감으로서의 경험을 포함하여 《북학의》의 사상을 점점 더 발전시켰고, 세 번의 연행을 더

다녀오게 됩니다. 연경에서의 박제가는 한양에서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연경잡절>에 언급했듯이, 박제가의 가짜 글씨가 유리창 거리에 돌아다닐 정도로 이름을 떨친 명사 중 하나가 되었으며, 《호저집》에 따르면 그가 2·3차 연행에서 교류한 중국 문사들이 93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고전서의 총 편수관으로 당대 청나라 사림의 거두였던 효람 기운이 정조에게 시를 보내며 초정을 사신으로 보내주면 좋겠다는 뜻을 비치자, 정조가 신하들을 돌아보며 “박제가야말로 나라를 빛낸 인재가 아니겠는가?”하고 물었다는 일화가 전합니다(정민 2014, 551-559).

초정의 연경 사랑은 단순히 중국의 선진 문물 때문만이 아니라, 연행이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개인적 의미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출로 태어나 입신하는 길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열망과 재능에도 불구하고 초정은 조선에서는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연경에서는 그의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유리창의 한인 거자 수십 명이 그의 글씨를 보러 찾아오는 해동의 선비였습니다. 초정에게 연경은 그가 지향한 사회의 모습이 사회전체적 차원 및 개인적 차원에서 구현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초정은 ‘북학’을 주장했고, 이는 그의 모든 정책적·학문적 사상을 묶는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초정은 평생에 걸쳐 상소문과 《북학의》 진상본 등을 통해 정조에게 조선사회의 개혁을 제언하였습니다. 1786년 올린 <병오소회>에서는 《북학의》에서 주장한 상공업 진흥과 더불어 사대부에 대한 개혁안을 올렸습니다. “놀고먹는 나라의 큰 쯤벌레”인 유생들이 장사와 무역에

종사하도록 해야하며, “그들이 가진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축소”(박제가 2013, 279)시키고 허례허식과 실리에 어긋나는 관행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목에서는 그러한 간절함과 조선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전쟁 먼지가 일지 않은 지 거의 200년입니다. 지난 역사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 천재일우의 기회에 온힘을 다하여 우리의 국력을 닦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변고라도 발생할 때 더불어 우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박제가 2013, 286)

결과적으로 초정의 사상과 정책은 조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다. 신분제와 봉당 정치의 한계뿐만 아니라, 물질적 발전을 위해서 사회의 근간을 바꾼다는 것은 당시 위정자들 머리 속의 ‘정책’·‘정치’의 개념과 상충되는 것이었고, 근현대에 와서 각광받고 있는 실학사상은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비주류였으니까요. ‘개혁군주’로 불리는 정조는 박제가의 개혁안을 적극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용인하고 가까이 두며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정조가 초정을 사상에 정확히 얼마나 공감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조는 그를 계속 아꼈으며, 조선에서 사대부가 상업에 종사하는 일은 없었고, 박제가가 주장한 해외통상은 훗날 그가 걱정했던 ‘우환’과 함께애나 찾아왔습니다. 1800년 정조가 서거한 이듬해, 박제가는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직후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초정 박제가는 청년 시절 연경과 유리창에서의 체험을 계기로 조선 밖의 더 넓은 세상을 자신의 터전으로 삼았지만, 중국 중심의 화이사상을 탈피했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의 껍데기는 오랑캐이지만 그 곳에 중화의 문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초정은 중국 문물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설명하지만, 그에 못 미치는 조선의 현실을 “중국을 배우지 못한 잘못”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단순한 수사법이나 문물 자체의 유용성과 합리성을 넘어 ‘중화’ 자체가 초정의 논리에서 무게감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북벌론 등 ‘중화’를 핑계로 한 허학을 비판하였고, 백성의 후생에 쓸모가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배워야 한다는 자세는 조선에서는 새로운 것이며 큰 잠재력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초정이 주장한 제도들이 일찍이 정착되었더라면, 19세기의 조선이 서구문물 또한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토양이 마련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날 서울에서 온 우리는 유리창 골목에 압도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불과 200년 전 그 자리에 서있던 연행사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놓친 것은 무엇이었는지 고민하며 유리창을 떠났습니다. ■



▲ 유리창 동가(東街) 입구에서 사랑방 일행

참고문헌

박제가. 2013. 《북학의》. 안대회 교감,역주. 파주: 돌베개.

박제가. 2010. 《정유각집》下. 정민 외 역. 파주: 돌베개.

이덕무. 1981. 《입연기》. 이식 · 정태현 역. 한국고전종합DB

<http://www.koreanhistory.or.kr> (최종검색일 2015.12.26.)

안대회 · 이현창 · 한영규 · 김현영 · 미야지마 히로시. 2013. 《초정 박제가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사람의 무늬.

이현창. 2011.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을 제시한) 박제가》. 서울: 민속원.

정민. 2014.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하버드 옌칭도서관에서 만난 후지쓰카 컬렉션》. 파주: 문학동네.

정민 외. 2013. 《북경 유리창: 18·19세기 동아시아의 문화거점》. 서울: 민속원.

자신을 위한, 인민을 위한 혁명투쟁 _모주석기념관

이민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5년 12월 29일

북경에서의 오전은 매연으로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발제를 앞둔 저는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인류는 대기오염에 대해 초개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 이 질문으로부터 떼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 세대를 돌이켜 보며 이기적인 세대였다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초개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우리 세대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택동이 그리는 사회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17년 모택동은 프리드리히 파울젠이 저술한 《윤리학 체계》에 대한 장대한 비평글을 내놓습니다. 모택동의 윤리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이렇습니다. ‘인류에게 윤리란 곧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 목적성을 두고 있으며 고로 이기적인 양심 속 충동이 개개인의 행위를 빚어낸다.’ 모택동은 곧 유교

사상에서의 인(仁)에 대한 가르침을 “외부적인 윤리강령”이라 칭하며 책임감이란 의무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장용 외 2006, 30-31).

모택동 비판론자는 모택동을 이중성의 인물이라 묘사합니다. 저는 이 이중성이라는 단어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중성이 담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모순입니다. 모택동은 자신의 행복 추구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만난 모택동은 항상 자신의 생존을 제일로 생각하고 행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중성’보다 ‘이기성’을 선택했습니다.

대기오염 속 우리와 모택동의 공통분모는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한 특성입니다. 모택동의 이기심은 친지와 당 동지, 그리고 많은 인민들을 자신의 생존과 권력을 위해서 희생시켰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대기오염을 만들었습니다. 차이는 이기심의 정도(程度)입니다.

모택동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그가 직업 혁명가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비판은 그가 직업 혁명가로써 거듭난 후부터 전개됩니다. 사실 모택동은 애초부터 마르크스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업 혁명가로서 거듭나기까지 두 시기가 있었습니다.

직업 혁명가로 거듭나기까지의 모택동			
	학생 운동가	마르크스주의자	공산 당원
시기	1912-1919	1920-1927	1927-
특징	민주개혁주의	노동조합 중심의 좌익 노동 운동	농민 위주의 반우경화 운동, 소비에트 운동과 신민주주의

모택동은 1893년 후난 성 소산에서 격변하는 시국 속에 태어났습니다. 청조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당시 후난 성은 물론 중국 본토는 여러 서방 국가들과 일본이 점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산 소학당과 상향 중학을 나온 모택동은 당시 서양과 일본의 신식 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다케우치 2005, 37). 특히 강유위의 《개혁운동》과 양계초의 《신민총보》를 통해 유신 개혁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모택동은 이때부터 혁명의 밑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12년 모택동은 수석으로 후난 성립 제1사범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모택동은 에드가 스노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이 당시에 자신의 정치사상이 형성되었다고 전합니다 (스노 2013, 183). 여기에는 그의 스승 양창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합니다. 양창지는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윤리철학 교수였는데 모택동은 그를 따랐습니다. 이때에 모택동은 여러 편의 글을 썼는데 《윤리학 체계》 비평 글도 이때에 쓰였습니다. 이때 쓴 글 중 <체육의 연구>를 통해 모택동을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서투른 생각으로는 천지의 사이에 있는 것은 움직임, 운동 뿐이다.
..... 체육 활동을 해서 효과를 올리려고 한다면 사람의 주관을 움직여서 체육에 대한 자각을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의지란 원래 인생의 사업에 있어서 선구가 되는 것이다. (모택동 1917)

이 글은 후에 쓰인 <실천론>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2년부터 1919년까지의 시기에 모택동의 관심은 정치사상보다는 실천과 개혁에 있었습니다.

제1사범 학교에서의 졸업 후 그는 북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5.4운동을 경험합니다. 모택동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짧은 수필 <창간 선언>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봉건주의 계층 사회문화를 비난하며 연합 민중의 실천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때 모택동은 보다 체계적인 사회 분석을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사회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이며, 둘째,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은 민중의 연합이다 (다케우치 2005, 87). 연합은 다른 말로 코뮌(Commune)을 뜻합니다.

1920년 모택동은 처음으로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스노 2013, 197). 이때부터 모택동의 정치사상은 구체화되었고, 이를 실천하려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스스로를 마르크스의 이론과 러시아 혁명사의 영향에 이끌렸다고 밝힌 모택동은 이 당시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카를 카우츠키의 《계급투쟁》, 그리고 토마스 커셉의 《사회주의사》를 읽고 믿음이 섰다고 주장합니다 (스노 2013, 197-198). 이때부터 그는 급진적인 러시아식 유혈투쟁을 이야기합니다. 1920년 가을 대공보에 실린 모택동의 글 <기초가 없는 대중국 건설을 타파하고 수많은 중국을 호남에서 건설하자>에서 그는 결집 민중의 행위자를 노동계급이라 칭합니다.

레닌과 같이 백만의 당원으로서 반혁명당을 일소하고 상층, 중층의 계급을 씻어 내보내어 전례가 없는 평민혁명의 대업을 굳건히 확립하였다. [불세비즘] 주의가 있고, 기회가 있고, 준비가 있고, 호소에 응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당원과 대중이 있다면, 하루의 수원에 호령해도 족한 것이다. 전국 인구 10분의 8, 9를 접하는 노동계급이 환성을 질러 호응하는 것이다. 러시아혁명의 성공은 모두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모택동 1920)

1922년부터 모택동은 국민당 선전부에서 당 서기로 일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조직화합니다. 이때 창사에서의 2년은 모택동의 혁명 서막이 되었습니다. 모택동은 당과 함께 ‘광부, 철도 노동자, 공공사업 종업원, 인쇄공, 정구 조폐국 노동자들을 조직화하여 노동운동에 뛰어들니다 (스노 2013, 201). 1924년 당시는 제1차 국공합작이 외세, 곧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난 중국을 목표로 협력할 때였습니다. 모택동은 5.30운동 및 여러 노동운동을 겪으면서 제국주의와 지주매판계급의 타도를 외치게 됩니다.

1924년 그가 작성한 <중국사회 각 계급의 분석>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모택동의 혁명 한가운데에는 반무산계급과 무산계급이 존재했습니다. 반무산계급과 무산계급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모택동은 반무산계급을 (1) 절대다수의 반자작농, (2) 반농, (3) 소수공업자, (4) 점원, (5) 행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무산계급은 산업노동자, 곧 (1) 철도, (2) 광산, (3) 해운, (4) 방직, (5) 조선업에서 종사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쉽게 말해 제국주의의

산물인 지주 매판계급에 의해 극심한 피해를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특히 200만 명의 수에 달하는 산업노동자들을 조명하는데, 이들을 외국 자본의 피해자라 지칭하는 동시에 그들을 현대 중국의 가장 진보적인 계급이며 혁명운동의 중심이라 묘사합니다 (모택동 1925).

이처럼 모택동은 처음에는 농민보다 산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었으나, 1927년 제1국공합작을 끝으로 모택동의 중심 시각은 작은 변환을 겪게 됩니다. 모택동은 1926년 제2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농민운동 조사관으로 후난 성에 파견됩니다. 여기서 모택동은 농민들의 현주소와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데, 이는 그의 《호남농민운동시찰보고서》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후난 성에서의 농민운동을 14가지 성취로 크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택동은 1927년 우한에서 열린 제5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광범위한 토지 재분배를 권고하는데, 이를 중앙위원회에서 묵살합니다. 국민당은 물론 진독수까지 반대했습니다. 모택동은 우한정부의 결정에 대해 크게 분노하여, 독자노선을 택합니다. 그는 노동자·농민으로 이루어진 부대인 홍군을 창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때부터가 모택동의 혁명투쟁의 진정한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택동의 이중성은 1927년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독자노선을 걸었던 모택동은 그의 소신이었던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927년의 추수 봉기는 모택동이 이끈 최초의 무장투쟁이었습니다 (공기두 2004, 67). 모택동은 5천 명에 달하는 수의 노동자·농민들은 도검과 죽창으로 무장한 오합지졸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병력은 대패하여 4천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기두 2004, 72). 후에 그는 정치·군사 훈련 수준이 엉망이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애초부터 추수 봉기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며 모택동은 정치국 위원직에서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직업 혁명가로서 모택동은 노동자·농민의 대변인으로 비취지기를 원했습니다. 모택동은 홍군을 체계화하기 위해 3가지 임무를 내세웁니다. 이 세 가지 임무는: 첫째, 적과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둘째, 인민대중을 무장시킨다; 셋째, 투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을 모은다 (스노 2013, 221). 그리고 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8가지 규율들을 만드는데, 그 중심에는 농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1928년 ‘삼대 가을 팔 향주의’ 조치로 모택동은 홍군에 대한 민심을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추수 봉기를 통해 모택동은 새로운 군사전술을 도입하는데, 바로 유격전술입니다. 유격전술은 군에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인 공격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격전술의 기초는 이러했습니다: (1) 적이 전진하면 우리는 퇴각한다, (2) 적이 멈춰서 진을 치면 우리는 그들을 교란시킨다, (3) 적이 피로하면 우리는 공격한다, (4) 적이 퇴각하면 우리는 추격한다 (스노 2013, 222).

여기서 모택동이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격전술의 중심에는 후방 군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화살받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1930년부터 이어진 5번의 국민당 초공전은 후방 군에게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1934년부터 1936년까지의 서북부로 향하는 대장정은

11개 성을 종횡으로 2만 5천 리에 이르렀는데, 수만의 인민들 중 살아남은 수가 기존의 십분의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택동이 군권을 잡고 난 후 그는 스스로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학생으로서 개혁주의를 몸소 느끼고 실천한 그는 당시 후난 성의 트렌드인 마르크스주의를 배우게 되며 그에 바탕을 둔 혁명 실천이 그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혁명가로서 그는 큰 명예를 얻었지만, 명예도 뒤따랐습니다. 그의 행복에 대한 정의 또한 자신의 지위와 당시 중국의 형세에 따라 변환됐습니다. 학생으로서 그는 마냥 글을 접하고 또 수필을 쓰는 일에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와 달리 혁명가로서 그는 혁명사업 완수에 큰 의의를 두고 추구했습니다. 그 속에서 모택동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절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그는 비난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를 한 인간으로서 해석할 때 저는 그를 비판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주석 기념관을 떠나면서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20년, 30년 뒤 북경을 다시 찾았을 때 모택동은 여느 때와 같이 천안문 광장 한가운데서 우리를 여전히 반길 수 있을까요? 청년 모택동을 공부한 저로서는 감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업적이 분명한 만큼 그의 과오 또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인민을 위한 투쟁이 인민을 죽음으로 몬 책임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중국 체제를 가능케한 국부로서 그는 체제가 지속되는 한 그곳에서 우리를 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문헌

모택동. 1917. 《체육의 연구》.

모택동. 1920. 《기초가 없는 대중국 건설을 타파하고 수많은 중국을 호남에서 건설하자》.

공기두. 2004. 《모택동의 시와 혁명》. 서울: 풀빛.

다케우치 미노루. 2005. 《청년 모택동》. 신현승 역. 서울: 논형학술.

에드거 스노. 2013. 《중국의 붉은 별》. 홍수원 외 역. 서울: 두레.

장융 외. 2006.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마오》. 향의방 외 역. 서울: 까치글방.

중국민족어문번역센터. 1991. 《모택동 선집 I》. 북경: 민족.

과거와 미래가 맞닿은 수평선 _국가박물관

김형기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과거를 만나러 가는 길

북경에 도착한지 이틀째, 우리에게는 중국의 고대, 근대, 현대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곳들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오기념관에서 현대 중국의 의미에 관해서 탐구한 이후여서 그런지 제가 느꼈던 중압감은 상당하였습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이란 장소는 고대 중국의 기원부터 시작해 중국의 전체적인 역사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해하려고 한 중국의 천하질서를 비롯하여 중국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 교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감과 사진으로만 보던 유물들을 드디어 만난다는 기대감을 안고 국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국가박물관으로 가는 길, 그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가박물관은 천안문 광장 맞은편에, 마오기념관과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오기념관에서 천안문을 지나 자금성을 통과하는 기준선 가장 가까이에, 그리고 그 중심부에 국가기념관을 지었다는 것에서 중국이 이 공간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국가박물관에 투자한 물질적 관심 역시 주목 할 만 합니다. 지속적인 대규모 확장, 증축을 통해 현재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 전시 박물관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입장하는 길에서 저는 중국이 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박물관이라면 작가와 작품들의 예술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며, 자연사 박물관이라면 동식물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알려 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박물관이라면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보여줄까요? 한 학기 동안 들여다 보았듯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국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정치학 시간에 늘 들어왔던 서양적인 ‘국가’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의 모습을 보더라도 현대국가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른 면들을 보여주며, 이는 서양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현대 국제질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양이 민주주의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갔다면, 중국은 아직까지도 정치적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정당으로 이루어진 정치로도 몇 십 년 동안 고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가지는 영향력과 책임감이 확대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서양의 성장 동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은 현재의 세계 질서를 확립, 혹은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국가박물관에 가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즉, 중국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 속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1세기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국가박물관의 규모는 입장하기 전부터 저를 압도했습니다. 건축양식 역시 중국 전통 모습을 반영하기 보다는 이와 정반대로 크고 높은 기둥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의 신전과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입장에 앞서 상당히 삼엄한 보안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지품은 물론이고 전신 수색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를 보더라도 국가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국가박물관의 역사와 오늘 방문하게 될 전시관 동선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하의 고대 중국관에서 시작해서 청나라 시대의 유적까지 본 후에 옥상에 위치한 대우정 특별 전시관을 둘러 본 후, 청나라 건륭제의 남순도를 살펴볼 계획이었습니다. 고대 중국관을 향하여 지하로 향했습니다.

고대 중국을 만나다

고대 중국관은 선사시대 유적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은 황하강 유역에서 기원한 양소 문명권으로서 이에 대한 유적도 남달랐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유물들부터, 최초의 중국인이라고 여겨지는



▲ 중국국가박물관 고대중국관

고대인의 백골무덤 등을 관람하였습니다. 선사시대의 유적들이 중국 대륙은 문명이 시작한 곳으로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매우 유서 깊고 중요한 곳이라고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명의 발상지로서의 중국의 정통성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앙소문명은 향후 중국 고대 천하질서가 발전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다음 살펴본 유적은 우리 한반도와도 연관이 깊은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는 현재 몽골 자치구인 조양, 심양지역 요하강변에서 발견된 고대 문화로서, 한민족의 뿌리인 단군조선 시대의 유물들로 추정되는 여러 작품들이 출토되었습니다. 홍산문화는 옥을 이용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중 중요한 작품은 중국의 첫 번째 용이라고 여겨지는 옥 장식품이었습니다. 현재도 중국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옥과 용을 기원전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데에 또 한 번 감탄하였습니다. 또한 위낙 중국 영토가 넓다 보니 여러 지역의 문명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전시해 놓을 수 있는 점도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다음 전시관은 춘추전국시대였습니다. 춘추전국시대는 수렵, 채집의 시대에서 본격적인 경작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규모 부락의 모습에서 도시 국가의 모습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체도 도시국가의 모습으로 성장하였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을 통해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황하강을 중심으로 전쟁이 빈번하게 지속되었으며,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대륙의 중심, 즉 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중원이 화(華)로 정립되고 그 사방으로 변방이 이(夷)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시대 당시 중원에 위치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는 화하(華夏)로 통칭되는 그들만 공유하는 문명과 문화적 양식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그 주변민족들을 알아보아 오랑캐를 뜻하는 이(夷)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문명과 문화적인 면으로 중국과 그 주변국을 분류하는 화이의 개념이 생겨났으며, 사방으로 나누었습니다. 즉, 서로는 서융(西戎), 북으로 북적(北狄), 남으로 남만(南蠻), 동으로 동이(東夷)로 불렸으며, 통칭하여 사이(四夷) 또는 융적만이(戎狄蠻夷)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춘추전국시대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화하가 중심에 자리하고, 사방을 그들과 다른 문화와 행동양식을 가진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세였습니다.

화하는 문명공동체적인 성격을 보였습니다. 즉 같은 문화, 생활양식, 삶에 대한 인식 등에서 하, 상, 주나라는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 당시 정립된 이러한 사상, 문화가 중국 천하질서의 정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문명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권 통치, 왕권의 확립, 귀족과 중인 계급의 분리, 예가 중심이 된 사회질서, 농업을 중시하는 생활양식 등이 있으며 이는 하, 상, 주나라의 유물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박물관에는 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쓰는 정(鼎), 궤(簋), 궤(觥) 등 다수의 예기(禮器)가 전시되어 있으며, 그 중 대우정(大盂鼎)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동기 시대 예기의 경우 지하가 아닌 4층 특별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문 당시에는 고대 중국관을 먼저 둘러본 후 4층으로 이동하였으나, 역사의 흐름과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서술하겠습니다.

대우정(大盂鼎)은 제사용 솥으로써 여섯 개의 뿔이 달린 동물의 얼굴과 구름, 번개의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대우정 안에 새겨진 291자입니다. 갑골문자에서 처음 등장한 하늘 천(天) 자가 다시 한 번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중화사상의 본유라고 할 수 있는 천명(天命)이 등장합니다. 새겨진 글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왕이 천령을 받았다. 무왕이 문왕의 대를 이어 나라를 건설하고 나쁜 무리를 제거해서 사방을 영유했다.” 이 의미에 관해서 하영선 선생님께서도 “결국 중국이 위치한 방(邦)은 하늘의 뜻을 받은 땅이며, 그를 둘러싼 사방(四方)과 구별됐다는 점에서 화이사상(華夷思想)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라며 대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영선 2012).

국가박물관이 자랑하는 청동기 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나라시기에 주조된 후모무대방정(后母戊大方鼎)입니다. 높이 133센티미터에 무게는 860킬로그램에 달하며, 청동기시대 유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모양이 크고 웅장하면서도 선조, 부조, 원조 등 다양한 기법에 의한 섬세한 장식이 있습니다. 처음 이 유물을 실제로 보았을 때, 저는 그 압도적인 사이즈와 장식의 섬세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솥의 내부에는 후모무(后母戊)라고 새겨져 있으며, 그 뜻은 이름이 무(戊)인 모후(后母)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석됩니다. 후모무대방정의 역사적 중요성은 제조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60킬로그램에 달하는 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나라 당시 용광로 크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80개 이상의 용광로에서 동시에 철을 녹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용광로마다 3~4명에 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때, 이는 200~300명의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133센티미터에 달하는 솥의 외형을 잡기 위해 흙으로 거푸집을 제조해야 하며, 이 역시 3000년 전에는 많은 인력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청동기 유물을 통해서 상나라 당시 중국에서는 수백 명이 힘을 합쳐 대규모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과 기술력이 존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춘추전국시대관을 지나서 진한시대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진나라 시대와 진시황은 제가 답사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시대인 만큼 상당히 기대에 차있었습니다. 마치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줄 때 사진을 보여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주다 마침내 소개팅 자리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진시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이유는 진시황이 중국 최초의 ‘황제’로 불리우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은 중원의 천하통일을 이루었으며, 이때 확립된 통치체계는 훗날 중국 대륙에 존재했던 제국들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진나라 시대에 천하가 통일됨에 따라 독립된 국가들이 한 행정체제로 합쳐졌습니다. 따라서 여러 행정적인 분야에서 역시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 도량형, 화폐 등이 통일되었습니다. 특히 도량형 통합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행령이 새겨진 도자기 표준 용기, 단일화된 화폐인 반량전, 장군이 군대를 통솔할 때 사용하던 호부(虎符) 등을 국가박물관에서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시황 관련 유물 중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진시황이 수행 중 낭야산(琅邪山)에 올라서 작성한 낭야각석(琅邪刻石)의 일부였습니다. 낭야각석의 글씨체 역시 진시황 시절 통일된 소전체로 새겨졌으며, 각석에서 진시황의 업적이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국가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각석은 전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사마천의 사기에 그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8년에 황제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으니 법도를 공평하게 하여 만물의 기강을 잡으셨다. 인륜을 밝혀 아버지와 아들의 화목을 꾀하시고, 성스러운 지혜와 인의로 도리를 밝히셨도다. 동으로 동쪽 땅을 다독이시고 병사들을 살피셨다. 큰일을 다 마치시고 바닷가에 임하셨다.

황제의 공적은 근본에 힘을 쓰신 것이다. 농업을 장려하고 상공업을 억제하시니 검수가 부유해졌다. 하늘 아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기 일에 힘을 쓰게 되었다. 도량형을 통일하고 글자도 통일했다. 해와 달이 비추고 배와 수레가 다니는 어디라도 그 명을 끝까지 받드니 뜻을 얻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시세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황제의 일이다. 서로 다른 풍속을 바로잡으려고 산과 물을 건너셨다. 검수를 가없게 여기시어 조석으로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의심스러운 법령을 없애고 정확한 법조문을 정하시니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모두가 알게 되었다. 지방장관의 직무가 구분되어 모든 업무가 쉬워졌다. 일의 처리가 타당해지니 바로잡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황제의 영명함으로 사방을 두루 살피시니 귀천을 불문하고 분수를 넘지 않게 되었다. 간사함을 용납하지 않으니 모두 바르고 착해지는 데 힘을 썼다. 작고 크고를 막론하고 온 힘을 다하니 감히 게으름을 피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다. 멀던 가깝던 구석지던 엄숙하고 반듯해지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니 모든 일에 변치 않는 규칙이 생겼다. 황제의 덕으로 사방 끝까지 안정을 찾았다. 난을 토벌하고 해악을 제거하여 복과 이익을 이루었다. 농사철에는 일을 줄이니 모든 생산이 크게 늘었다. 검수가 안녕을 찾으니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되었다. 육친이 서로를 돌보니 마침내 도적이 없어졌다. 교화를 기꺼이 받들며 법령과 제도를 모두 알게 되었다. 천지사방이 모두 황제의 땅이다. 서로는 유사(流沙)를 건너고, 남으로는 북호(北戶)에 이르며, 동으로는

동해를 포함하고, 북으로는 대하(大夏)를 넘는다. 사람의 발이 미칠 수 있다면 신하 아닌 곳이 없었다. 그 공은 오제를 덮고, 은택은 소와 말에 미쳤다. 그 덕을 입지 않는 자 없으니 각자 안녕을 누렸다. (사마천 《사기》본기, 권 6, <진시황본기>)



▲ 낭야각석과 하영선 선생님

낭야각석에 기록돼 있는 진시황의 모습은 매우 모범적인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은 이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도 진시황에 대한 평가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진나라 멸망 이후 세워진 한나라의 경우, 과진론이라는 책을 통해 진나라의 잘못을 논하고 이것으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 역시 다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시황에 대한 평가가 그리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서적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시킨 사건인 분서갱유의 잘못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 이후의 서적들 역시 대부분 진시황의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면들이 부각되어진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최초의 황제라는 점에 주목한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마오쩌둥이며, 그는 진시황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이 진시황과 닮은 점이 많다고 수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0세의 마오쩌둥이 1973년 한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 진시황의 병마용갱

진시황은 중국 봉건사회에서 제일로 유명했던 황제다. 나도 진시황이다. 린바오는 나를 진시황이라고 욕했다. 중국은 예부터 두 파가 있다. 한 파는 진시황이 훌륭하다고 말한다. 또 한 파는 진시황은 나쁘다고 한다. 나는 진시황에 동의하고, 공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진시황은 첫 통일중국을 이루고 문자를 통일했으며, 넓은 도로 수축과 나라 속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집권제의 통치구조를 만들었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으로 관리를 파견해 다스리고 기간에 따라 바꾸면서 세습 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강효백 2011)

하지만 마오쩌둥도 정치생활 초반기에는 진시황을 낮게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그의 평가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여러 서양학자들은 동양의 학자들 보다는 진시황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중요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의 통일을 이뤄낸 첫

황제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진시황 비난의 주요 내용인 분서갱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학자들도 있으며, 설령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과장되어 기록되어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진시황은 여러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들을 두루 모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분서갱유에서 그려지는 폭군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진나라 관련 유물들을 살펴본 후, 계속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금루옥의를 살펴보았습니다. 2,500여 개의 옥 조각을 1kg에 달하는 금사로 엮어서 만들었으며, 그 당시 귀족들과 왕족들의 장례용 수의였습니다. 옥에 구멍을 뚫고 금실로 엮은 정교함에서 그 당시 장인들의 세공능력과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국가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점은 하북성 정현 팔각량춘에서 1973년에 발굴된 것으로서 서한중산회왕 유수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루옥의에서도 보여지듯, 고대 중국에서 사후세계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나라 무제의 경우, 그의 제위기간은 54년이었지만 그의 능묘는 53년간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옥과 금을 사용한 이유도 부패를 막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으며, 능묘에 같이 넣는 수장품의 규모도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시황의 병마용갱도 소장품이었으며, 국가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유물 중 상당수가 소장품이었기에 온전히 현 시대까지 보관되어 발굴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멸종했지만 중국에 살았던 코뿔소를 본뜬 술병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기로서 금으로 화려한 장식이 되어있어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유물은 당나라 시대 당삼채로서, 낙타에 한족, 호인 5명이 등에 타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3가지 색의 유약을 사용해 다양한 색으로 연출됐고 광택도 낮습니다. 실제로 보니 상당히 큰 사이즈였으며, 다소 실망했던 점은 유약의 칠이 사진만큼 정교하진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 송대 족빛 도자기

들여다보니 세밀하고 정교하게 칠해졌다기 보다는 약간 투박했습니다. 낙타나 사람 형상 역시 테두리 부위가 매끄럽게 처리가 되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당나라의 코즈모폴리턴 적인 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이 당시 기술이 도입되어서 신라시대에 신라 삼채라는 이름으로 제작이 되어 유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삼채를 실제로 보았으니 한국에서 신라 삼채도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옛 신라사람들이 어떻게 당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였는지, 새로운 해석이 들어갔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도 도자기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족빛이 나는 도자기였는데, 그 색이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물에 여러 가지 물감을 풀어서 섞은 것과 같은 색감이었는데, 마치 보고만 있어도

빠져 들어가 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중국의 도자기 문화도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넘어오면서 지대한 발전이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삼채와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섬세하고 예술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여 명청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관람할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러한 유물들이 있다는 것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건륭제가 강남 지방을 순방한 당시 상황을 그린 건륭남순도가 특별전시 중이었습니다. 건륭제는 강남 지방에 상당히 신경을 썼으며, 그의 조부인 강희제도 강남으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이때 남긴 그림이 강희남순도입니다. 이 두 황제의 남순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이 존재하므로, 이 둘을 비교해보는 쪽으로 발표 준비를 해 갔습니다. 강희남순도를 아이패드에 저장하여, 건륭남순도를 보면서 같이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정책상 30분마다 입장을 하게 되어있었고,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쉽게 나와야만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빠르게 도자기 전시관을 둘러보시고 나오시면서 선생님께서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남겨놓고 가는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마치 오랫동안 펜팔을 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만남이 무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1층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저의 발표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가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유물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진나라에 대해서 썼지만 발표는 전 시대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감도 상당했습니다. 끝나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준비했으나 발표하지 못했던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사랑방 동료들이 국가박물관에서 즐겁게 관람하고 탐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국가박물관을 방문한 목적은 중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려고 했던 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방대한 자료와 유물이 우리 앞에 놓여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나절이란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에 비하면 너무나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박물관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를 보았고, 중국 천하질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진시황을 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21세기 중국이 꿈꾸고 있는 천하질서의 청사진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



▲ 중국국가박물관 로비

참고문헌

- 사마천. “사기-진시황본기” [事記-秦始皇本紀] - 한글 번역문 (사기: 본기(번역문), 2013. 5. 1.)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108&cid=49633&categoryId=55607>
- 강효백. 2011. 《마오쩌둥을 키운 건 마르크스 아닌 진시황》. 서울: 데일리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251270> (검색일: 2015.12.10)
- 하영선. 2012. 한국외교사연구회 9월 정례모임 세미나 기록.
http://www.hayoungsun.net/panelView.asp?code=ys_meet1&idx=360&id=meet1&page=2, 2012. 9. 22. (검색일: 2015.12.10)

새로운 조선을 향한 70일간의 고뇌 _자금성

홍성표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답사 출발 전, 저는 스스로 선생님과 학우들에게 ‘잊지 못할 자금성(紫禁城)’을 선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그 꿈을 이루고 왔습니다.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도착한 10여 분 뒤, 자금성 우측에 있는 문연각(文淵閣)을 방문하기 위해 동쪽의 문을 지나는 순간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심지어 문연각까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자금성에 입성한 지 10여 분 만에 자금성에서 나와야 하는 ‘잊지 못할 자금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금성에서 저는 조선의 16대 왕인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비록 시간 계산 착오로 인해 직접 그의 숨결을 느끼고 오진 못했지만 소현세자를 만나기 위한 저의 준비 과정을 써볼까 합니다.

소현세자와 자금성,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잠시 역사로 들어가면 1636년 12월 청은 조선을 침략하였고 인조와 조정은 굶주림과 추위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지만, 결국 1637년 1월에 청 태종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청과 군신의 예를 맺음과 동시에 명과의 관계를 끊으며 세폐를 바칠 것 등 10여 개조를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소현세자를 청에 볼모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소현세자는 1637년부터 1644년까지 총 8년간의 볼모 생활을 했고, 그 생활의 마지막 70일 《심양일기》에 따르면 소현세자는 1644년 9월 19일에서 1644년 11월 26일까지 총 70일간을 자금성에서 머무른 후 조선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약 3개월 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 볼모 생활의 폐막과 죽음의 서막 그 가운데, 바로 자금성에서의 마지막 70일이라는 막간은 소현세자라는 인물을 복원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금성에서의 마지막 70일은 소현세자의 인생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간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과 소현세자의 관계’라는 국제정치의 렌즈, ‘인조와 소현세자의 관계’라는 국내정치의 렌즈, 그리고 ‘아담 샬과 소현세자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소현세자의 마지막 70일을 복합적으로 복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과 소현세자의 관계’의 렌즈

소현세자의 마지막 70일을 복원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은 17세기 중반의 국제정치적 정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정치 흐름의 핵심은 명·청의 관계였고, 그 중 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소현세자의 청에 대한 인식을 적대기, 전환기, 수용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기는 1636년부터 1641년의 시기입니다. 이 때 조선이 오랑캐의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아 겪은 병자호란과 그 결과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가는 대표적 사건이 있었고, 따라서 소현세자의 청에 대한 인식은 ‘적대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에서 나와 청 태종에게 삼궐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를 행함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조선에서 철군하는 청의 군대와 함께 출발하여 4월 10일 심양성에 이르고 조선 사신이 객관이었던 동관에 머물다가 5월 7일 새로 지은 심양관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이곳에서 8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조선인 포로들을 송환하는 일, 청태종과 함께 사냥 및 각종 행사에 참석했던 일, 청으로부터 계속 명과 내통한다는 의심으로 인해 이를 해명해야 했던 일 등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을 통한 굴욕과 치욕, 세자가 아닌 볼모로서의 대접과 의심, 조선과 청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 및 협박으로 인해 소현세자의 청에 대한 인식은 불편하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현세자의 인식의 ‘전환기’는 바로 두 번째 시기인 명의 쇠퇴와 청의 부상 시기로서 청과 명 사이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1641년을 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으로 섬겨온 명의 쇠퇴와 청의 부상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소현세자로서는 청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척화론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644년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자살과 함께 대국의 몰락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644년. 이제 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청의 존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청이 명을 멸망시키는 그 역사적인 장소에 소현세자는 함께 있었습니다. 숭정제의 자살, 순치제의 등극, 그리고 소현세자의 자금성 입성은 더 이상 명 중심의 중원질서가 아닌 청 중심의 중원질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동아시아 구조 아래 소현세자는 북경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70일을 자금성에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1644년 당시 향후 외교정책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소현세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새로 떠오른 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조와 소현세자의 관계’의 렌즈

‘새로 떠오른 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소현세자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극심하게 악화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1644년 8년간의 볼모생활 뒤, 드디어 소현세자는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뻐 날뛸 줄 알았던 인조가 세자의 귀국을 반기기보단 의심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인조와 소현세자와의 관계는 떨어져있는 8년의 기간 동안 온갖 의심으로 점차 그 관계가 악화되어 돌아오기 직전 그 정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의 의심은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이라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청의 두 사람에 대한 견제 및 이간질과 두 사람의 상호불신의 결과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선 청은 병자호란 후, 인조를 길들이기 위해 ‘소현세자 카드’를 교묘히 활용했는데, 인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볼모인 소현세자를 즉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청이 소현세자를 활용하여 인조를 견제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내 당시 인조로서는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1639년 7월 청은 명의 금주(錦州) 공략을 앞두고, 조선에게 병력과 함선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에 대해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청은 ‘왕위 교체론’을 흘리면서 인조를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의 ‘왕위

교체론'에 인조는 상당한 심적 압박을 받았고 아들인 소현세자를 정치적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때문에 소현세자의 행동은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인조와 조정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소현세자의 심양관소 개축 계획이 있습니다. 1642년 7월, 심양에서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현세자는 두 달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관소를 대폭 개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의 증축과 보수 작업을 위해 많은 재목과 돌을 구입했죠. 그리고 화가들을 불러 관소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이러한 소현세자의 계획을 좋게 볼 수 없었고 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적국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하는 소현세자가 오히려 편안하게 살기 위해 관소를 개축하는 움직임에 인조 역시 기뻐할 리가 없었습니다.

둘째, 심기원 모반 사건입니다. 소현세자의 2차 임시귀국인 1644년 1월 후, 그 해 3월에 인조를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추대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그 주모자가 인조반정의 일등공신인 청원부원군 심기원이라는 점으로, 인조에 대한 당시 사대부들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세자가 귀국했을 때 거사를 일으켜 인조를 상왕으로 내쫓은 후 북벌을 단행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회은군 이덕인을 추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의 의심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소현세자의 시험 출제와 급제 요청입니다. 시험출제와 급제는 당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왕의 고유 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현세자는 이러한 권한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남용하여 인조와 조정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이런 미심쩍은 대해 인조는 관계를 회복하기 보단 더욱 냉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소현세자는 8년간의 불모생활 동안 왕의 문병을 이유로 두 차례(1640년 3월과 1644년 1월)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심양과 북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조로서는 이 2번의 기회가 소현세자와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죠. 우선 1640년 1차 귀국 당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둘은 만나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자가 이에 들어와 상 앞에 이르러 부복하고는 눈물을 흘리니, 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루만졌다. 시신(侍臣)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오목도가 저지시키자, 상이 말하기를, “다시 볼 줄은 생각도 못했으므로 저절로 슬퍼져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였다.
(《인조실록》 40권)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소현세자가 심양으로 돌아가자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1644년 1월 강비의 아버지 강석기의 죽음을 계기로 소현세자 부부는 2차 귀국을 하였는데 이때 강빈과 인조는

7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반응은 더욱 더 냉담해졌습니다. 인조는 며느리에게 친절에 들를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인조는 “과인이 지금 재변이 참혹하고 민심이 안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느라 법 밖의 예나 외람한 거조는 생각이 미칠 틈이 없다.”고 대답하였죠. 이로써 강빈은 아버지의 상청에 들러 곡하거나, 무덤을 찾아 절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강빈의 모친 역시 병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병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차 귀국 시, 소현세자와 인조의 만남에 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인조와 소현세자의 갈등의 증폭은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기 보단 청과 인조, 소현세자의 행동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담 살과 소현세자’의 렌즈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국제정치적으로는 명의 몰락과 청의 부상이라는 정세와 국내정치적으로는 아버지와의 극심한 관계 악화라는 과정 속에서 소현세자는 북경에서의 마지막 70일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현세자의 마지막 70일에 관한 연구 중 다수가 바로 아담 살과 소현세자의 관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기존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아담 살을 만났다는 점, 둘째,

천주교(서교)를 접했다는 점, 셋째, 천문학(서학)을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의 의견은 앞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를 살펴본 이상, 이러한 해석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정교봉포》와 아담살의 회고록에 소개된 소현세자의 편지만 살펴보면 마치 소현세자는 천주교인이 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유교사상이 매우 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됩니다. 청과 명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던 광해군이 폐위되었던 까닭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유교이념에 토대를 둔 조선왕조의 지배체제를 거슬렀기 때문이죠. ‘숭명배척’의 옳고 그름을 두고 대립했던 인조 당시 국내정치적 구조의 기저에 바로 이러한 유교적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의 인간 평등사상과 내세 사상은 군신관계라는 유교사상을 전면적으로 반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국내에 전파하는 행동은 스스로 ‘정치적 파멸을 자초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현세자가 천주교를 수용하였고 이를 마치 국내에 전파하려고 했다는 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초,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 《천주실의》 등이 최초로 조선으로 들어와 일부 식자층의 의식 확대에 영향을 주었고 1630년도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 <만국전도>, 《직방외기》, 《홍의포제본》 등 서적과 화포, 천리경, 자명종 등을 가져와서 서양문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서서히 도입되었던 서양의 기술과 학문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보고

체험한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청과 국내의 정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도에 관심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가지 렌즈의 종합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렌즈를 종합해보면 소현세자는 국제정치적으로는 청이라는 새로운 중원의 주인을 받아들여야 했고 국내정치적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악화 및 조정의 강화되는 반청 분위기라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이념적 축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의 몰락과 청의 강력함을 직접 경험한 소현세자로서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서인의 반청 구도로 가기에는 현실감이 너무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친청의 구도로 가기에 현실감이 떨어졌겠죠. 따라서 소현세자는 이러한 생존의 딜레마 속에서 현실적으로 본인을 위치시켜야만 했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최대한 넓히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서학을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 기존 연구들의 ‘기대감’이라는 주장과는 반대로 소현세자는 불타 무너져 버린 자금성의 문연각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치로서 명·청의 교체기를 겪었고, 국내정치라는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자금성에서의 마지막 70일을 매우 ‘복잡한’ 심정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복잡한’이라는 의미는 ‘고뇌하는’ 의미와도 유사합니다.

비록 소현세자가 머무른 문연각에서 그의 생각과 숨결을 직접 체험하고 오진 못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더욱 의미 깊은 답사였습니다. 아마 소현세자를 만나고 계획대로 답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아마 답사를 마친 뒤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만 남겨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소현세자의 고민과 고뇌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과 고뇌를 앞으로의 공부에 녹여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금성을 떠났습니다.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중국포교사》

《황청개국방략》

《동문서고》

소현세자 시강원. 정하영 옮김. 2008. 《심양장계》. 창비.

소현세자 시강원. 2008. 『역주 소현심양일기1』 한국학연구원
동궁일기역주팀. 민속원

소현세자 시강원. 2008. 『역주 소현심양일기3』 한국학연구원
동궁일기역주팀. 민속원

소현세자 시강원. 2008. 『역주 소현심양일기4소현을유동궁일기』
한국학연구원 동궁일기역주팀. 민속원

김남윤. 2013. “소현세자빈 강씨의 심양관 생활”,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24, pp. 141-168.

김문식. 2004. “역사: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소현세자의 외교 활동.”
선비문화 4, pp. 6-12.

Adam Schall et alii. 1672. *Historica relatio de ortu et progressu fidei
orthodoxae in regno Chinensi per missionarios Societatis Jesu ab
anno 1581 usque ad annum 1669. Intorcetta. Augustus
Hanckwitz.*

서태후의 두 얼굴을 간직한 곳 _이화원

조소진

고려대학교

들어가며

처음이었습니다. 베이징의 파란 하늘을 보며,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는 힘껏 숨을 들이마시게 된 것이.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베이징은 답사 3일차가 되던 날에서야 뿌연 커튼을 열고 우리를 맞이해주는 듯했습니다.

사랑방 6기의 중국 답사 셋째 날인 2015년 12월 30일. 베이징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원명원과 이화원을 찾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스모그로 가득 차 어떤 필터로도 볼 수 없었던 베이징의 하늘을 보니, 버스 안에서 괜스레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건힌 황사에 기온은 조금 더 떨어진 듯 했습니다. 건륭제의 통치 질서가 가득 담겨 있었던 서양루와 원명원을 둘러본 후, 우리는 점심을 미루고 이화원으로 향했습니다. ‘Summer Palace’라고 불리는 명칭처럼, 이화원은 청나라의 여름 별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 2,900,000㎡로 중국 최대 규모의 황실 정원인 이화원은 인공 호수인 곤명호(昆明湖)와

만수산, 그리고 중국의 조경과 정원예술이 잘 드러나는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화원 지도. 전체 면적 중에서 인공호수인 곤명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일전쟁의 패전원인을 제공한, 청을 망하게 한 호정(狐精), 사치스러운 중국의 3대 악녀까지. 이화원을 화려하게 재건한 서태후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들입니다. 서태후는 1991년까지도 중국 교과서에서 ‘사악함과 권모술수의 주모자’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9세기 어두워져 가는 청나라의 끝자락을 잡았던 인물입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서태후는 중국 근대사 50여 년간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3차례의 수렴청정을 통해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혼란의 시점에서 그녀는 청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두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청일전쟁부터 무술정변까지, 결정권자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서양세력이 침략을 강행하던 혼돈의 19세기, 서태후는 이를 어떻게 판단했으며 헤쳐나가려 했을까요?

서태후의 알려진 얼굴

동궁문에서 우리를 처음 맞이한 것은 서태후의 경극 극장으로 알려진 덕화원(德和園)이었습니다.

서태후는 경극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1891년부터 1895년까지, 서태후는 은화 71만 냥을 들여 덕화원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 년 중, 그녀가 덕화원에서 경극을 관람한 날이 272일이나 되었고, 215명의 배우를 이화원에서 자금성까지 황실행렬을 이루고 가게끔 했다는 기록은



▲덕화원 대희루의 모습. 자희태후가 경극을 감상하던 곳이다.

경극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지점은 주변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향락을 위해 해군 군비를 유용하여 이화원 증축에 낭비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화원과 관련한 서태후의 이미지는 ‘사치스러운’ 여성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해군력 증강에 사용되었어야 할 돈을 이화원에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의 패전 원인을 서태후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간 프레임에서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국방문제에 관해 무지했다고도 덧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서구식 해군 규정을 처음으로 승인한 것은 서태후였습니다. 1888년 5월 30일 칙명에서 서태후는 이홍장에게, “엄청나게 비싸기는 하지만, 철갑 포함을 한 두 척 사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구로부터의 ‘최대의 항구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논한 결과였습니다. 서태후는 해군을 건설하는 연간 예산으로 400만 테일을 승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태후는 어떤 고민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서태후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서태후는 1861년부터 1908년까지 47년간 3번의 수렴청정을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서태후는 1852년 함풍제의 첩으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자비롭고 즐거운(慈禧)’이라는 뜻으로 불리기도 한 서태후는 1856년 아들 재순(동치제)를 낳으면서 귀비에 올랐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으로 열하에 피신했던 1861년에 함풍제가 사망하고, 5세였던 아들이 동치제로 즉위했습니다. 서태후는 1861년 공친왕 혁흔(奕訢)과 밀모하여 8명의 고명대신을 제거하는 신유정변을 일으켰고, 이후 동태후(자안태후)와 함께 실권을 장악합니다. 100여 년간 지속된 청조의 쇄국정책과 더불어 함풍제의 과도한 외국인 증오는 당시 중국을 난국에 빠지게 했습니다. 서태후는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강’(自強)이라는 표어를 내걸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당시는 태평천국 반란으로 국내정세가 혼란스러웠을 시기였습니다. 청조는 서양과의 협력체제에 기반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아편전쟁을 치른 직후였기 때문에 서태후는 중국 본래의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하되 부국강병(富國強兵)하기 위해 근대 서양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체서용을 추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녀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양무운동을 추진했습니다.



▲ 서태후의 초상화. 긴 손톱과 양쪽에 놓여져 있는 과일이 특징이다.

1875년에 동치제가 천연두로 사망하자 서태후는 자신의 섭정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황제를 동치제의 양자가 아닌 세 살이었던 재침(광서제)을 그녀의 양아들로 삼아 황제로 삼았습니다. '중국의 정신을 유지한 채 기술만 배우는' 즉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한계를 지녔던 양무운동의 결과는 잇달아 밀려오는 서구 열강과의 마찰과 청일전쟁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1898년 광서제는

친정선포 이후 Kang Youwei(康有爲)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개혁(변법자강운동)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서태후를 비롯한 제당에 의해 103일 만에 제당당했고, 광서제는 유폐되었습니다. 1897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영토는 열강들의 지배지역에 편입되어 갔고, 외세 침략에 분노한 민중들이

반기독교적 성격을 띠는 의화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서태후는 ‘부청멸양’을 주장한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서양열강과의 전쟁을 추진했다가, 일본이 포함된 8개국 연합군에 의해 북경을 점령당하고 배상금까지 물어주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처럼 수렴청정이 그녀의 권력욕을 키웠고, 또 정세를 읽는 그녀의 시야를 가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력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현대의 평가가 서태후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서구에 의한 왜곡과 오리엔탈리즘

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태후는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하우스(Edmund Backhouse)의 기록과 서양의 제국주의적 시각의 결합은 서태후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청조 말, 영국 외교부 통역관 신분으로 중국에 거주했던 백하우스는 서구 언론매체에 중국과 서태후에 관한 수많은 정보와 소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타임즈(The Times)의 특파원 모리슨(Morrison)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모리슨에게 백하우스는 충실한 정보원이었습니다. 더불어 Kang Youwei의 변법자강운동이 100일 천하로 끝난 시점에 이러한 형세를 접했던 백하우스와 블랜드, 모리슨은 반(反)후당파 시각에 더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Kang Youwei가 했던

반(反)청, 반(反)만주족과 관련된 말들은 모두 믿었기에 백하우스의 서술이 타임지에 기록으로서 출판될 수 있었을뿐더러 백하우스는 자신의 서술에 대해 진위를 밝히지 않고서도 그 서술을 인용해 회고록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 백하우스는 “1902년부터 서태후와 성관계를 지속해왔다”(Backhouse 2011)며 자신을 서태후의 서양애인으로 회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하우스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서태후의 최측근 비서관 청셴(Ching-shan)의 일기와 블랜드가 들은 고흥명(Ku Hung-ming, 辜鴻銘)의 진술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는 모리슨이 타임즈에 기술한 이야기를 맹신했고, 서태후의 이미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것을 기준으로 재확산, 재생산되었습니다. 모리슨은 청조 내부자의 시각에서 발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심지어 백하우스는 이것을 토대로 자신의 회고록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레버 로퍼의 《Hermit of Peking》(Trevor-Roper 2011)에서 이것은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백하우스가 가장 설득력 있던 Ching-shan's diary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백하우스가 주장한 것과 달리 Ching-shan은 1864년에 청조의 비서가 아니었으며, 그의 아들들 역시 제국 집권 시기에 공직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를 받아 백하우스의 회고록의 진위여부를 살폈던 트레버 로퍼는 그의 책에서 “백하우스에게 역사는 학문도 아니고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도 아니었다. 보상심리의 대상이자 세상을 회피하는 수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지배우위를 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모(Collusion)’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백하우스의 회고록은 당시 서구의 구미에 딱 맞는 서술이었습니다. 서태후를 그려내고 있는 서양 열강의 모습에서 또한 그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서구 언론에서 서태후를 묘사하고 있는 사진과 그림에서도 공통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서태후를 ‘용’으로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서태후를 묘사한 서구의 이미지.

출처: Images courtesy of the Freer Gallery of Art and the Arthur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MIT Visualizing Cultures

서구 시각문화에서 용은 주로 악의 상징으로 간주되는데, 서태후는 이러한 맥락에서 ‘남자처럼 드세고 지배욕이 강하며, 교활하고 사악하고 위험한 동시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적 매력으로 백인남성을 손아귀에 쥐고 갈취하는 여성’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서태후 전기에서도 그녀를 ‘Dragon Lady’(Seagrave 1992) 혹은 ‘The Dragon Empress’(Marina Warner)로 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생산물의 기저에는 ‘열등한 타자로서의 동양’으로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현해내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시아 식민지화 책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미지를 조작,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의 확산과 허위 지식의 생산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지식과 권력의 담합에 의한 제국주의의 헤게모니 장악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백하우스의 기록은 제국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인에 의한 지배적 측면의 성적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서태후가 직접 남긴 글은 없지만, 사실상 이 시기의 최고 결정권자는 서태후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전, 제당과 후당의 싸움터



▲서태후가 정무를 보던 곳

다음으로는, 인수전(仁壽殿)을 찾았습니다. 인수전은 서태후가 정무를 보던 곳으로, 1898년 변법자강운동이 논의됐던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분명 청일전쟁을 앞두고도, 이곳에서 논의했을 겁니다. 서태후의 이화원 재건은 청일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서태후는 당시의 정세를 어떻게 읽었기에 제때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 청일전쟁 발발 직전의 청 내부에서의 제당과 후당의 갈등을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1894)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와 청 내부의 정세 속에서 발발했습니다. 발발 직전 국제정세 속의 일본은 1867년에 즉위한 메이지 일왕 통치기간에 유신을 통해 대외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팽창의 방향은 조선과 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과 청나라 동북, 서북지역으로의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열강은 해상을 통한 청 침략을 위한 명목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청조 내부의 정치상황도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1889년 광서제는 친정을 시작했고 광서제 주변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의 권위는 은퇴 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제보다 서열이 높기도 했고, 나이 상으로도 한 세대 위의 연장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황제보다 상위에 있는 권력자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상황은 광서제, 옹동화를 중심으로 한 제당과 서태후, 이홍장을 중심으로 한 후당의 갈등을 낳을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친정을 실시한 후에도 광서제는 이화원으로 문안인사를 가서 서태후에게 국정을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 시기는 서양의 기술을 배워 서양의 대포와 군함을 모방해 만들고, 서양의 방법으로 군대를 훈련하여 나라를 튼튼히 하자는 양무운동이 추진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진내(鎭內), 즉 태평천국의 진압이었던 어외(禦外)였던 중국은 군사 무기의 열세를 스스로 인정했고, 서양의 장기를 인정하고 이를 배워야겠다는 맥락에서 여러 개혁이 추진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밀려오는 열강들의 파도에 청과 일본은 해군력 강화 등을 통해 군비 확장을 시도했고, 청은 프랑스의 침략을 시작으로 조선의 임오군란, 동학농민운동 등에 군사력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의 분열로 인한 정세판단 부족과 총체적인 군대의 통수권 문제는 전투력 약화를 가져왔고, 이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화원과 해군, 그리고 청일전쟁

이와 관련해 청일전쟁의 패배의 씨앗은 서태후에게 있다고 보는 비평여론이 형성되었고 지금까지도 서태후를 이야기할 때면 회자되곤 합니다. 특히나 해군력 증강에 사용될 군비를 이화원 재건에 투입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목소리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Kangyuei는 “해군 예산 가운데 3천만 원을 가지고 철갑선 10여 척을 구입하기로 한 예산이 모두 이화원의 수축에 전용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광서 13년(1887년) 이후에는 철갑선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일본에 패배한 이유이다.”라고 회고하며 청조의 부패상을 전쟁 패배의 주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화원 재건과 동시에 군함구입이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1888년 이후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까지 북양함대는 한 척의 군함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1886년 네 척의 군함을 구입한 이후 해군 경비 가운데 이화원의 수축을 위한 경비로 이출된 비용이 총 1200~1400만 은에 달했습니다. 1891년 이화원의 공사가 완공된 이후 호부는 국고의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북양함대로 하여금 총, 대포, 선박, 기기의 구입을 2년간 공식적으로 중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해군제독 정여창(丁汝昌) 등은 중국의 해군 장비가 일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누차 쾌속선의 구입과 함포의 설치가 시급함을 상주하였으나 호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북양해군에 이미 돈을 쏟아 부었으니 이제 더 이상 군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홍장과 북양함대의 장령들은 이와 같은 조정의 판단에 대해 조정 관료들이 모두 서생 출신이라 군대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서태후의 이화원 재건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장 융(2015)은 서태후가 당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화원 재건에 몰두하게 된 것은 광서제가 서태후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개입하지 못한 이유는 육순 축하연 때문이 아니라, 광서제가 서태후의 개입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장 융은 서태후가 해군 자금을 유용한 것은 오판이었고,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전쟁의 패배나 시모노세키 조약에 관해서는 광서제와 청 황실의 군기대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융의 지적은 당시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서태후의 이화원 재건 결정이 청일전쟁에 일정 정도 이상의 영향을 끼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당시 예산 편성과, 외교정책의 기초 부문에서 제당과 후당의 대립은 이것을 더욱 확대시켰고, 결국 기울어져가는 전쟁의 양상을 굳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예산의 편성 권한은 호부에 있었으며 1882년 이후 호부상서는 바로 청류파의 수뇌라 할 수 있는 옹동화(광서제의 스승, 제당)였습니다. 옹동화는 후당이 추진한 양무운동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예산편성 권한을 통해 이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부상서의 임명권이 청조 수뇌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습은 한인 관료인 이홍장의 권한 확대에 대한 만주족 정부의 제도적 견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지환(2005)은 외면적으로 볼 때 이홍장 등 양무파 관료들과 이에 대항하는 청류파의 옹동화 등의 대립이 격렬했지만, 이들은 모두 만청통치 집단의 핵심에는 진입할 수 없었으며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만주족정권의 상호견제 대원칙 하에서 연출한 조연자에 불과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정책 기조에서 제당과 후당은 분명한 입장 차를 보입니다. 후당은 주화론(열강을 통한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전쟁을 피해야 한다)과 연러를 주장했으나 제당은 주전론과 연영항일을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조정 안에서의 의견 불일치가 정치적 단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전쟁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만주족 정권의 상호견제 대원칙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전쟁’이라는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의 분열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청의 패전을 자초한 결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화론을 주장했던 이홍장(후당)은 열강의 침입에 대해 북양함대의 총책임자로서 중국육해군의 취약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홍장은 일본과의 정면충돌보다는 대일화해의 외교를 모색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야욕이 수그러들지 않자, 후당은 러시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일본입장에서 러시아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길 바란다는 생각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택한 것인데, 제당보다 당시 정세를 반영한 방향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태후와 이홍장은 러시아를 맹신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외면상 중국의 중재 요구에 응했지만, 실제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현상유지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광서제를 비롯한 옹동화(제당)은 ‘연영항일’의 외교 전략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대중국 소일본의 전통 관념을 버리지 못한 채, 청의 군사적 역량을 과대평가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국은 열강 중에서도 중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 대외무역에서도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영국과 연합해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옥란당 그리고 광서제와 서태후의 갈등



▲광서제가 유폐되었던 옥란당

옥란당은 광서제의 침실로 무술정변 진압 이후 광서제가 유폐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광서제는 왜 이곳에 유폐되었을까요?

제당과 후당의 대립으로 이어져온 광서제와 서태후의 갈등은 변법을 추구했던 100일 개혁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변법자강운동, 혹은 100일 개혁이라 불리는 개혁이 일어나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한 후, 청조 내부에서 양무운동에 대한 회의론이 늘어났습니다. 몸은 그대로 있고 서구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일본의 유신처럼 체제 자체를 뒤엎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당과 후당의 갈등도 더 심화되었는데, 제당의 세력이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었습니다.

광서제는 후당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옹동화와 이홍조를 총리아문대신으로 임명하여 외교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이에 반기를 들어 옹동화를 파면시켰습니다. 광서제는 서태후에게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상황 타개를 위해 그는 젊은 사상가들의 개혁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큰 틀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것 입니다. 이에 광서제는 Kang Youwei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Kang Youwei는 민(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공화정을 정치의 이상으로 보고,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Kang Youwei의 영향을 받은 양계초는 기술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이의 관건은 교육제도의

개혁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에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서제는 이 주장을 수용하여, 1898년 6월 각 방면의 변법실시에 대한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광서제를 중심으로 한 제당과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후당 간의 대립은 청일전쟁에서의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함께 전후의 대일본정책을 두고 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제당에서는 일본에 온화한 태도를 취한 이홍장을 비판하였습니다. 광서제는 변법실행에 관한 조서를 발표하며, 개혁파를 등용하면서 ‘백일유신’(百日維新)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들은 변법파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이들이 개혁을 통해 서태후의 수렴청정을 폐하려 하자 서태후는 옹동화를 파면시키며 반격했습니다. 반격에 위기를 느꼈던 변법파들은 군사적 행동을 도모하게 되었고, 원세개(袁世凱)와의 협력을 시도했으나, 원세개의 배신으로 그들의 개혁은 10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태후의 입장으로 알려진 면은 이렇습니다. 광서제의 개혁은 서태후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서양의 정치제도로 정치구조의 개혁을 추구했던 Kang Youwei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나 서구에서는 Kang Youwei의 개혁을 높이 평가했는데, 서태후가 이를 가로막으며 청조 발전에 저해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또한 이를 서태후의 잔혹성과도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서태후가 광서제를 유폐시켜서 죽였다고 주장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더불어 광서제의

변법자강운동을 반대한 것은 서태후 자신의 권력유지라는 “눈앞의 이익만을 내다보며”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받곤 합니다.

광서제의 진정은 사실상 서태후와 정치권력을 다투는 투쟁의 기간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무술변법에 이르기 까지 양측의 관계는 줄곧 대립에 치달았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의 개혁이 자신을 권력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광서제를 계속해서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변법 초기에 서태후는 광서제에게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이렇게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변법은 내가 평소에 바라던 것이요. 동치(同治: 1862~1874) 초기에 중국번(曾國藩)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양에 유학생들을 파견하여 부국강병을 시도하였소. 진실로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만 있다면 황제가 그것을 추진하더라도 나는 간섭하지 않겠소. (費行簡 1980)

이처럼 서태후는 Kang Youwei의 개혁에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있었지만, 광서제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편, 양무파인 이홍장도 Kang Youwei의 변법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서 24년(1898) 정월 Kang Youwei를 천거받은 광서제는 우선 총리아문 대신들에게 Kang Youwei와 회담하여 그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홍장은 관제개혁을 주장하는 Kang Youwei에 대해 그러면

“6부(六部)도 모두 없애고 칙례(則禮)도 모두 없앨 것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물음은 이홍장이 Kang유웨이(康有爲)의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무술정변 후(광서 25년 12월, 1895) 이홍장의 조카사위인 손보선(孫寶瑄)의 일기내용을 보면 이홍장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홍장이 말하기를 …… “나도 Kang유웨이당(康有爲黨)에 속한다. 최근 태후를 알현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강당(康黨)이라고 규탄했음을 알았다.”라고 했다. 이에 이홍장은 태후에게 “신은 실은 강당입니다. 황제를 폐하려 한 음모에 대해서는 신이 관계한 바 없습니다만 6부는 정말 없애야 합니다. 구법(舊法)을 가지고 부강을 능히 이룰 수 있었다면 중국은 오래전에 부강이 이루어졌지 왜 오늘에 이르렀겠습니까? 변법을 주장하는 사람을 Kang유웨이 일당으로 친다면 신은 별수 없이 강당에 속합니다.”(丁文江編 1959)

이렇듯 이홍장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청류파나 변법파들과 대립되어 있었으나 변법 그 자체에는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서태후와 이홍장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나, 제당과의 입장대립에서 국가의 자강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더욱 집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광서제를 포함한 변법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변법을 통한 국가의 자강보다 후당의 권력을 빼앗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었고 군사를

이용해 이를 가속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무술정변’이라는 파국으로까지 치달았던 것입니다. 만약 제당이 후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택했다라면 지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나가며

‘서태후’를 듣자마자 연상되는 ‘폭군’이라는 표현과 달리, 서태후는 당시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유지돼왔던 ‘청’의 질서와 속국의 질서, 그리고 새로이 등장한 서양세력 등 자신이 봐오지 못했던 것들의 등장에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혼란스러워 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나라를 망친 여인’이라는 수식어는 그녀에게 조금은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녀는 훌륭한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100여 개의 반찬을 먹었고, 한 번 입은 옷은 다시 입지 않았다는 그녀의 사치스러움과 권력에 대한 집착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백하우스와 Kangyuwei 등에 의해 형성된 색안경은 서양에 의해 더욱 왜곡돼 재현되었고, 지금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겨울에 본 여름궁전은 행하디 행했습니다. 꾹꾹 얼어버린 곤명호를 바라보며, 서태후는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겨울의 이화원에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서태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서양과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의 문명적 충돌을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의 괴로움,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고 ‘기록’한 현재의 역사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참고문헌

- 장 용. 2015. 《현대 중국의 기초를 만든 통치자 서태후》1, 2. 이종인 옮김.
서울: 책과 함께.
- 신승하. 2004. 《근대중국: 개혁과 혁명-중화제국 마지막 왕조의 몰락》上,
下. 서울: 대명출판사.
- 레지널드 존스틴. 2008. 《자금성의 황혼》. 김성배 옮김. 서울:돌베개.
- 金志煥. 2005. “清日戰爭期 中國 外交路線의 變化”. 동학연구, 103-
134.
- 丁文江編. 1959. 《梁任公年譜長篇初稿》.臺北. 世界書局.
- Bland, J.O.P, and Edmund Backhouse. 2011. *China Under the Empress Dowager: The History of the Life and Times of Tzu-Hsi*. Hong Kong: China Economic Review Pub. (HK) Ltd. for Earnshaw Books.
- Chen, Dennis, and Zhongping Chen. 2013. *The Western Perception of Empress Dowager Cixi*. University of Victoria.
- Hogge, David. 2011. “The Empress Dowager and the Camera Photographing Cixi 1903-1904”. Visualizing Cultures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Paine, S.C.M. 2005.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erceptions, Power, and Prim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agrave, Sterling. 1992. *Dragon Lady: The Life and Legend of the Last Empress of China*. New York: Vintage Books.

Trevor-Roper, H. R. 2011. *Hermit of Peking: The Hidden Life of Sir Edmund Backhouse*. Dufour Editions. Penguin Books.

부록

- **The Meeting of East and West through Xi Yang**

Lou_원명원 : 구민선

- **EAI 사랑방 2015년 2학기 프로그램**

- **EAI 후원회원**

부록

The Meeting of East and West through Xi Yang Lou _원명원

구민선

연세대학교

Catching a Glimpse of Qing China's Receptiveness to Western Culture

What most people would know or remember about Yuan Ming Yuan in general is that the ruins represent not only the “shaming” of an empire or a civilization, but to put more extremely, some describe the looting and the destruction of the garden as “raping.” (Thiriez 1998; China Heritage Project 2006) The vestige of the buildings, much of which has been razed to the point that there are only a few columns or nothing left at all, has been used actively by the Chinese authority to promote patriotism and nationalism among the young by associating the ruins to “national humiliation” suffered by China since the end of the second Opium War in 1860. In 2007, the central government began promoting Yuan Ming

Yuan as a tourist attraction, and the ruins of Western-style fountain called Da Shui Fa (大水法, translated as big water method) in Xi Yang Lou became a motif for the logo of the park.

In the academia, it is also easy to find colossal literature on the destruction of the Old Summer Palace by Europeans in the context of European imperialism in East Asia in 19th century. Thus, the common impression people had when they thought of Yuan Ming Yuan was European imperialism and Chinese national humiliation.

The purpose of my research on Yuan Ming Yuan and in particular Xi Yang Lou was to elucidate Emperor Qianlong's keenness on having Western-style architecture in his imperial garden. The answer would have two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it enables us to better understand how tolerant China was to Western culture during Qing China's apogee especially since Qing rulers, being Manchus, constantly faced the problem of defining Qing "identity." Any slight misstep in defining the new dynasty's identity would endanger the court, which was made up of Manchu minority, but was ruling the majority Han.

Second, and more importantly, an attempt to gauge Qing China's receptiveness to Western culture also has important, albeit indirect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is is because in tandem with the prevailing discourse on the rise of Chin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many have

questioned the possibility of a “different” order as China becomes more powerful and influential. Pessimistic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es predict that a powerful China would challenge prevailing American or Western values and norms, potentially destabilizing the international order.

With this in mind, I borrow from Martin Wight’s famous equation of “Politics : Political Theory = International Politics :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attempt to interpret the Chinese world view in late 18th century. (Wight 1960) As a compound of Western-style buildings in the midst of Chinese imperial gardens, I thought Xi Yang Lou would provide a good starting point for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e Chinese world view of the late 18th century, in particular the West. The degree of China’s receptiveness to Western cultural influences could offer us a glimpse of how exclusive China has been towards foreign cultural norms and standards. A preliminary analysis on this through Xi Yang Lou in Yuan Ming Yuan could then provide us useful hints as to what to expect from systems and policie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to Yuan Ming Yuan

After walking for about what seemed like forever but was actually only about 15 minutes from the southern entrance of Yuan Ming Yuan (圓明園, translated as garden of perfect brightness; also known as the Old Summer Palace), we were finally approaching the gate to the Xi Yang Lou (西洋樓, translated as Western-style buildings) which I have been anticipating for months to see ever since I first learned about it during a seminar on Chinese history in the spring of 2015. The area of the Xi Yang Lou is small – approximately five percent of the entire imperial garden complex, located in the northeastern corner of Yuan Ming Yuan complex, the area of which is equivalent to approximately 2000 soccer fields. It comprises Western-style fountains and buildings built during Emperor Qianlong's reign and were almost entirely flattened when the Anglo-French troops pillaged and burned them down following the second Opium War in 1860.

These fountains and the buildings in this isolated corner of the imperial garden were specially ordered by the emperor to be built in Western-style. Although Western-style buildings were not unprecedented in China even in those days (they existed in China in the form of cathedrals built by Western missionaries), it was indeed revolutionary as Western-style architecture was used for the first time in *imperial* Chinese gardens.

That they were located in an imperial garden and were also specially ordered by the emperor speaks volume not only about Qianlong's personal preferences but also the state of the dynasty in late 18th century. By delving into the psychology behind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is portion of the garden, I attempted to “read” into Qianlong's thoughts in initiating the building of Western-style buildings. Was Qianlong receptive to Western culture?

Since archives of conversations or interactions between Qianlong and foreign master minds behind Xi Yang Lou like Giuseppe Castiglione and Michael Benoit could not be found, I resorted to and relied on secondary sources that nonetheless allowed me to put up an interesting presentation on deciphering Qianlong's thoughts on Xi Yang Lou and its place in his worldview.

Background to Yuan Ming Yuan and Xi Yang Lou during Qianlong's reign

Yuan Ming Yuan today is preserved as part of a national heritage park. Located in the northwest of Beijing, it is actually outside the old Beijing city. Rumors have it that the Qing rulers who were descendants of Manchurians deliberately wanted an imperial garden to the north as they

were used to colder climates and so wanted to escape the heat in Beijing especially during summer. Being 20 kilometers north of Wang Fu Jing where our hotel was, this rumor seemed to make sense as the air in the park was undoubtedly chillier and crispier. The park opens at 7 in the morning, probably to cater to the needs of the local population who do their morning exercises in the park. We entered the park through the South Gate that led us to Qi Chun Yuan (绮春园, translated as garden of gorgeous spring), which is the southeastern portion of Yuan Ming Yuan.

Yuan Ming Yuan, as it is commonly known, actually comprises three smaller gardens – the original Yuan Ming Yuan, Chang Chun Yuan (长春园, translated as garden of eternal spring), and Qi Chun Yuan. The irony is that we cannot see the entire original Yuan Ming Yuan in the Yuan Ming Yuan national park today.

The original Yuan Ming Yuan was first constructed by Emperor Kangxi for leisurely purposes. Initially, Emperor Kangxi's own imperial garden was known as Chang Chun Yuan (畅春园, translated as the Garden of Uninhibited Spring) and it was where both preceding emperors, Yongzheng and Qianlong fondly remember as the garden where they spent time with Kangxi to appreciate peonies. This garden was the harbinger to Yuan Ming Yuan complex as we know today.

The name Yuan Ming Yuan was given by Emperor Kangxi and unlike Xi Yang Lou, this part of the garden comprises Chinese-style structures and buildings. It was also a critical site for Qing rulers especially from Emperor Yongzheng's reign onwards because they conducted state affairs as they would have in the Forbidden City. This was also where Emperor Qianlong grew up since 11 – a privilege for a young prince as he was chosen by his grandfather, Emperor Kangxi, from amongst his several siblings. Most importantly, the original Yuan Ming Yuan garden fertilized the seed of Xi Yang Lou in two ways. First, this was where Western missionaries and foreigners were housed (Ru Yi Guan) and second, because of this, Qianlong had frequent contacts with foreign missionaries during which he would develop his artistic tastes and preferences that would later culminate into the materialization of his dream of having palace gardens similar to those in Europe.

We made our way into the park through the Southern Gate that leads to Qi Chun Yuan. Beginning our route from this garden is actually resisting the chronological order of the construction of the gardens since it was the last addition to the Yuan Ming Yuan complex.

Walking through the garden complex to reach Xi Yang Lou felt as though the garden itself was a massive lake on which islets were built. In fact, Hai Dian (海淀) district, the area in which Yuan Ming Yuan is located, literally means “accumulated water” because geologically the area has a

lot of underground water. Thus it was easy to create lakes which were critical to scenic landscapes in Chinese gardens. This site, however, was chosen by Emperor Kangxi to build an imperial garden for another reason. It was known for the scenic view created by the mountains to the west (Xi Shan, 西山).

Unfortunately we were too caught up with reaching Xi Yang Lou to notice the scenic surroundings and it did not help that the temperature was a negative that day. The frozen Fu Hai (福海, translated as lake of happiness), which was the biggest lake in the garden, was a testimony to the biting morning temperature.

The lakeside was lined with a row of eateries selling popular snacks like tanghulu (sugar-coated fruits) and also shops selling hairbands with Manchu-style female headset designs. It felt like any other amusement park, veiling the “shameful” history of the garden represented by the ruins in the Xi Yang Lou.



▲ A huge, frozen lake on our way to Xi Yang Lou.

The next stretch of walk was through Chang Chun Yuan which was created by Emperor Qianlong and in which Xi Yang Lou was located. We walked by another huge lake but this time we were greeted by swans. The ambience here, too, was leisurely and was most likely used by visitors for such purposes as they could rent plastic swans to ride on the lake. I imagined Emperor Qianlong would have consented to such use as long as it did not compromise the landscapes he sought in this part of the garden. The landscapes in Chang Chun Yuan were in fact “replicas” of famous scenic landscapes found in the southern part of China. When Qianlong went on tours to the south, he was so smitten by the beautiful gardens there that he ordered their designs to be “transferred” to Chang

Chun Yuan. Thus, this section of Yuan Ming Yuan is less original than mere replicas of beautiful gardens of southern part of China. It also gives us some insightful hints about what Xi Yang Lou stood for in Qianlong's view – a mere replica of beautiful European palace gardens to be built for his personal pleasure.

Taking a Walk down the Memory Lane of Qing Dynasty at its Apex: Xi Yang Lou

The entrance to Xi Yang Lou was unexpectedly simple and rustic that I had not noticed that we reached Xi Yang Lou if not for a small admission ticket booth and a narrow entrance gate. The garden was cordoned off by a wall although it was rightly part of Chang Chun Yuan, and this wall seems to have existed since the garden's existence as the garden was accessible to the emperor and a selected few. No foreign missions including those from Joseon, are reported to have seen these Western structures, although they were invited to the original Yuan Ming Yuan for banquets.

Additional admission fees and a separate entrance into the compounds of Xi Yang Lou suggest strongly that it is the highlight of the Yuan Ming Yuan garden complex today. Whether it was the highlight during its

glory in late 1800s, however, is unknown. I was also mildly surprised by the larger number of visitors, mostly Chinese, in Xi Yang Lou compared to other parts of the garden.

Our walk through Xi Yang Lou began from the western part of the garden, and if one were to come unprepared and without knowledge about the ruins, the park would indeed be boring. The first structure, also the one kept the most intact, was the Maze (万花殿 translated as Ten thousand flowers) which resembles Renaissance-style garden found in Italy. According to a CCTV documentary on Yuan Ming Yuan and Xi Yang Lou, during the Mid-Autumn Festival, the emperor would look down at servant girls carrying fireflies in lanterns and finding their way to the pavilion in the center of this maze where the emperor was. The emperor enjoyed this view, as the lit lanterns throughout the maze resembled bright flowers. We made our way to the pavilion quite easily, thanks to other visitors who were walking from the pavilion to the entrance of the garden.



▲ View of the Maze from the pavilion.



▲ Our team at the pavilion in the center of the Maze.

The irony of our visit to Xi Yang Lou was that the sky was extremely clear and spotless – a stark contrast from the previous day when the pollution index in Beijing hit 500, considered extremely hazardous. Right next day, the index was 43, which was even lower than that in Seoul at that moment. The sky was a deep blue, which contrasted with the greyish-white of the remaining columns of buildings. This contrast was also figurative - the bright, blue sky indeed contrasted with the gloomy history of the remains of the garden.

Making our way eastward in the garden, we witnessed the scale of destruction in 1860. The vestige of some structures, such as the Bamboo Pavilion, could not be found at all. Others, like the Hai Yan Tang, Yuan Ying Guan, and Da Shui Fa, barely resembled the original structure.



▲ In both pictures, the original structure of Hai Yan Tang is barely recognizable from its remains today.

As I explained to our team the history and the function of Xi Yang Lou, I kept in mind Hui Zou's argument that while Xi Yang Lou itself was not a hybrid product of Chinese and Western culture, the garden's landscapes as portrayed in the twenty copper plates created by Chinese court artist Yi Lantai, also Castiglione's student, were the products of a combination of Chinese and Western-style of paintings. He also argued that these copper plates depicted what Qianlong personally saw as he walked through the garden eastward (the same path we took). (Zou 2011) Thus, I tried to imagine and trace the path Qianlong took while he was enjoying his stroll in this garden.

The last structure we saw was the highlight of Yuan Ming Yuan not only today but also probably during Qianlong's reign. I figured that because of the arrangement of the buildings and structures. It is said that Qianlong enjoyed watching the fountains at Da Shui Fa from the throne at Guan Shui Fa. This throne, made from stone, is known to be the only throne in the entire Chinese territory and history facing north. According to Confucianism, the emperor's throne must face south so that his face remains bright as it is lit by sunlight. This principle was also applied to Chinese imperial portraits which unlike Western-style of portrait painting, the emperors' faces in imperial portraits were not supposed to have any shadows on them. The stone throne at Guan Shui Fa was an

exception to this principle as the emperor would face north with his back facing south to appreciate the fountains. The violation of this principle seemed to have been forgone by the court initially, as Qianlong did not wish to have his view of the fountain disturbed by sunlight if he was to face it south.

Chinese cultural norms nevertheless prevailed even in leisurely circumstances in the later years – Yuan Ying Guan, the last building to be completed in Xi Yang Lou (it was completed in 1781, 20 years after other buildings were constructed), was built to the north of Da Shui Fa so that the emperor could appreciate the fountains from his south-facing throne. Yuan Ying Guan has been incinerated almost completely, ironically leaving visitors today a better view of Da Shui Fa and its famous arch that is widely recognized as Yuan Ming Yuan today.

As I explained the background of these three structures to our team, many Chinese visitors have gathered in front of Da Shui Fa and were posing for photographs. If not for time constraints, I would have intervened in their photo-taking sessions to ask how they felt after seeing the symbolic remains of the days when Qing China was at its peak.

Epilogue: Xi Yang Lou as Qianlong's Personal "Lounge"

Why has Xi Yang Lou then become so symbolic of the great Chinese civilization when in fact the structures and buildings were Western-style? If Western-style buildings were destroyed by Europeans, China would have not found it "shameful" or "humiliating" since they were symbolic of the West and not China. This then raises the question of what Xi Yang Lou stands for in the Chinese perspective. It would be a leap to the conclusion to say that Qing China embraced Western culture as part of the dynasty. After all, Xi Yang Lou occupied only a tiny fraction of the garden complex and was exclusively for the emperor's use. Not even foreign emissaries were invited to this portion. Only a Portuguese mission is said to have seen the fountains at Da Shui Fa. The only other foreigners who saw this section were the missionaries directly involved in designing and building of the structures.

Based on the secondary sources, Xi Yang Lou was no more than a private amusement park for Qianlong. Unlike the original Yuan Ming Yuan which he used to conduct official affairs, he was unwilling to use the Western-style buildings beyond entertainment purposes. After all, the Western-style structures were limited to the gardens and not the imperial palaces. The fountains and Qianlong's personal collection of art and furniture kept in Xi Yang Lou would have given the emperor some

much-needed respite for the emperor as he waged wars against the Dzungars. Xi Yang Lou was his playground, and a museum for exotic things and birds he received as gifts from foreign emissaries. In short, I concluded that Xi Yang Lou functioned as the emperor's private "lounge" for leisure and private time either alone or with his spouses and concubines.

At the same time, however, we could also discern Qianlong's political ambitions. Through building European-style gardens and building structures in the imperial garden, he wanted to showcase his power - powerful enough to build Western-style structures in the imperial garden. Perhaps the Yuan Ming Yuan complex itself represented Qianlong's world-view - he was not only the absolute ruler of Qing China which by then expanded its territories westward to include Tibet and Xinjiang, but he was also beginning to eye the West. He possessed materially what his European counterparts did. Thus, Western culture as embodied in the fountains and the buildings in Xi Yang Lou was not accepted by Qianlong as an equal, but secondary to Chinese culture and for the purpose of leisure only. ■

참고문헌

- China Heritage Project. 2006. “Gong Xiaogong and the Sacking of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 *China Heritage Quarterly*. No. 8 December 2006. Date of Access: February 3 2016.
http://www.chinaheritagequarterly.org/features.php?searchterm=008_gong_xiaogong.inc&issue=008
- Thiriez, Regine. 1998. *Barbarian Lens: Western Photographers of the Qianlong Emperor's European Palaces*. Amsterdam: Gordon and Breach.
- Wight, Martin. 1960. “Why is there no International Theo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 35-48.
- Zou, Hui. 2011. *A Jesuit Garden in Beijing and Early Modern Chinese Culture*. Purdue University Press.
- 祁庆富, 金成南. 2005. 清代朝鲜使臣与圆明园. 清史研究. 3. 89-97.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 고대천하에서 미래복합까지”

- 1주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
- 2주 천하질서의 기원 : 서주에서 전국까지
- 3주 천하질서의 형성 : 진한에서 수당까지
- 4주 천하질서의 변환 I: 송에서 원까지
- 5주 천하질서의 변환 II: 명에서 청까지
- 6주 연구계획서 발표
- 7주 ‘금수’ 문명의 전파와 변용
- 8주 일본 대아시아주의의 신화
- 9주 냉전질서 I: 한국전쟁의 비극
- 10주 냉전질서 II: 미중 데탕트와 남북 7·4 공동성명의 명암
- 11주 복합질서 I: 중국의 부상
- 12주 복합질서 II: 미중시대의 미래
- 13주 복합질서 III: 동아시아신질서 건축의 미학
- 14주 연구논문 초고발표
- 15 주 베이징 답사 여행



사랑방의 *전우*그들 베이징을 품다

강명훈	김승빈	노봉일	손대현
강은모	김시연	노환길	손재기
강찬수	김영구	류재희	송기춘
강현욱	김영섭	명정모	송우엽
고병희	김영원	민선식	송지연
고승연	김용규	민선영	신동원
고혜선	김용남	박근아	신명철
공성원	김 원	박미영	신보희
공정문	김유상	박사라수현	신상화
공창위	김유주	박상민	신성수
구상환	김은선	박상용	신성호
구윤정	김은영	박석원	신영준
구준서	김재두	박선정	신영환
권세린	김 정	박성만	신준희
김가현	김정섭	박수진	안용찬
김건민	김정은	박연호	안정구
김경순	김정은	박영택	안중익
김경지	김정하	박용준	안현정
김광덕	김 준	박장호	안현호
김국형	김지윤	박정섭	양호실
김기정	김지태	박진원	엄찬섭
김기준	김 진	박찬근	여동찬
김남희	김진영	박찬희	여현정
김대영	김진혁	박창완	우미경
김동건	김창수	박형민	원종숙
김동호	김태균	배기욱	유승훈
김만호	김한기	배위섭	유재승
김민규	김현성	백송현	유정석
김병국	김현전	백혜영	유지영
김병표	김형운	서은숙	유창수
김병희	김형찬	서정원	육은경
김봉하	김희정	서희정	윤병석
김상래	김희진	선승훈	윤영두
김수진	남윤호	성정은	윤용집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윤우성	이중구	정윤석	한일봉
윤재훈	이지원	정윤호	한정원
윤정선	이지희	정재관	한지현
윤창민	이창원	정주연	허세홍
윤희성	이 항	정진영	홍성우
이근우	이해완	정해일	홍성원
이기호	이현옥	정현윤	홍호영
이내영	이현희	정현주	황 수
이동훈	이호준	정현철	황정원
이미혜	이흥구	조규남	황준호
이민교	이흥재	조규완	W1°
이범주	이희정	조동현	
이봉재	임지순	조현선	
이상원	임현모	주영아	
이상훈	임현진	지혜리	
이서현	임홍재	진선희	
이선주	장동우	진재욱	
이선희	장동진	차국린	
이성량	장세린	차동민	
이소민	장세형	채규민	
이숙종	장재훈	채규호	
이승훈	장준혁	최 건	
이시연	장진호	최규남	
이신화	장희진	최동규	
이여희	전경수	최병규	
이원중	전명선	최복대	
이인옥	전혜진	최종호	
이재섭	정기용	최준원	
이정호	정랑호	최철원	
이정희	정병갑	하형일	
이종진	정석희	한금현	
이종호	정영진	한상철	
이주연	정용화	한숙현	
이주연	정원철	한승혜	

